



www.maggun.com

2017.01 vol. 70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 강성욱 군산시의원

· 이재명 성남시장 군산간담회

·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

· 문창호 군산대교수

· 베트남 간호조무사 한국정착기

· 음반수집가 소성필

· 군산여류화가회장 서희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장 황진

The Beautiful Struggle



Now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강의실에서 계속되는 토론의 열기는 식히지 못합니다.
젊은 열정과 꿈이 가득한 캠퍼스,
오늘도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학생이 중심인 행복한 대학,
여기는 국립군산대학교!



풍요·융화·품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세계 최장의 33.9km 새만금 방조제!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김선옥 소설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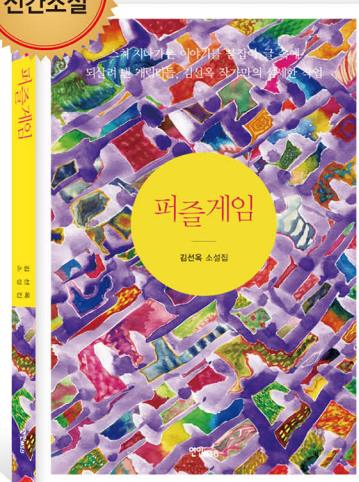
퍼즐게임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를 붙잡아
글 속에 되살려 낸 캐릭터들,
김선옥 작가만의 섬세한 작업!

이 책 『퍼즐게임』은 김선옥 소설가의 첫 소설집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주변의 소외되거나 혹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글 속에 되살려 내고 있는데, 독특하면서도 개성이 넘치는 등장인물들을 김 작가만의 특유의 섬세함으로 다소 어둡고 무거운 소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냉정하면서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삶과 죽음의 현장에 있다. 죽음과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노인 병실에서 참나에 저세상으로 떠난 목숨들로 어느 날은 슬프고, 우울해서 가슴에 통증이 있다. 해방웨이의 소설들로 날을 지새우며 중군기자를 꿈꿨던 사춘기 시절, 삶과 죽음의 치열한 현장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치기어린 환상이 아니었을까 싶다. 나이 든 지금은 모든 게 덧없고, 허허롭다. 그래도 아직은 건강해서 내가 해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웃고, 붙잡거나 안아 주는 행동에 고마워하는 사람들, 그들 곁에 있을 수 있어 감사하다.”는 작가의 말처럼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보듬어 안는 작가의 연민과 휴머니티가 따뜻하게 전해지는 신간 소설입니다.

화제의
신간소설



신국판 | 271면 | 값 14,000원

hite

하이트진로



여러분은 이제부터
hite만 마십니다!

친맥하라 hite

정말 좋아해요!!
정기



이번에 군산에 가면
빵도 먹고,
점빵도 먹고,
간장게장도 먹고,
콩나물국밥도 먹고,
호원사진관하고 은파호수공원하고
철길마을에 가서 사진도 찍고,
새만금을 미친듯이 둘러보고,
일본식가옥에서 조상의 아픔도 느끼고,
근대역사박물관도 구경할거야.
그리고,
잠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잘거야.

나비잠 게스트하우스
010-8436-8810
군산시 구영3길 34-2



햇살이 가득한 집
010-6678-6759
군산시 거석길 39



꿀잠 게스트하우스
010-4489-2663
군산시 구영3길 67



레마 게스트하우스
010-4463-1563
군산시 중앙로 205



사이사이 게스트하우스
010-5401-1959
군산시 구영6길 64



게스트하우스 이웃
010-4048-8811
군산시 구영1길 11-2



즐거운 여행의 시작은
좋은 숙박에서 시작됩니다.
군산에 오시면
편발리지로 연락 주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게스트하우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전국 최초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
군산편발리지협동조합
www.funvillage.kr 063-446-8830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명산

은파호수

언덕 위 예배당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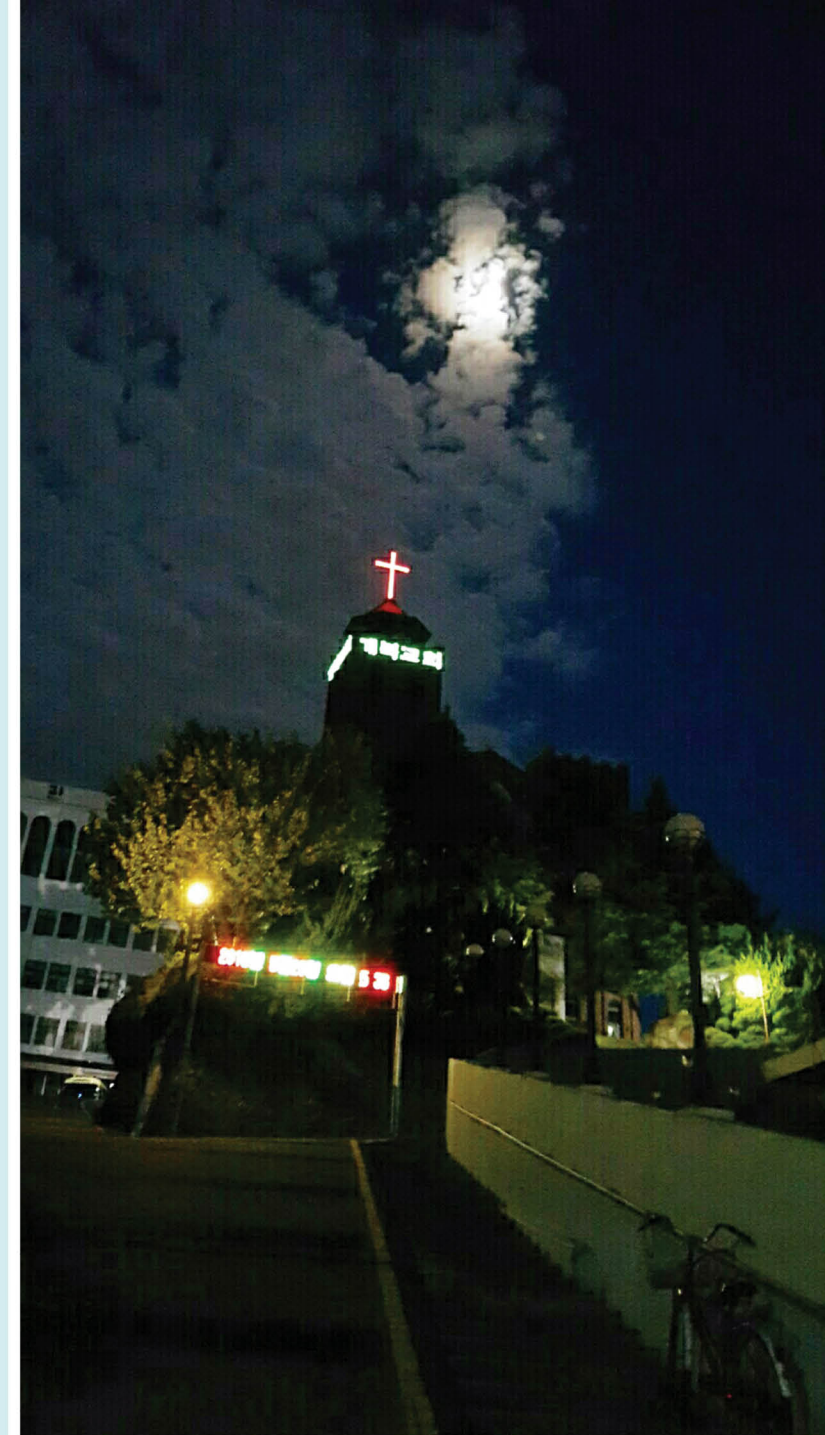
가난한 영혼들을 위하여

정유년 새벽을 밝히는

성도들 뒷모습

내가 아닌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최 윤

1959년 전북 군산 출생
군산고등학교, 전북대학교 졸업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응용과학부 교수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한국어류학회장,
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장 역임

교수들이 2016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선정했다. 이는 군자주야 서인자수야(君者舟也 庶人者水也). 수족재주 수족복주(水則載舟 水則覆舟), 즉 '백성은 물이요 임금은 배이니 물의 힘으로 배가 뜨지만, 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언필칭 민주 국가에서 사상 유래 없는 관민(官民)공동정부가 운영되어 오히려 민(民) 측이 주도적으로 국정을 장악, 관의 국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농단했다는 것이 현재의 드러난 어불성설 적 상황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지도력을 상실한 무늬만의 대통령으로서 일개 민간 여성에게 모든 국정을 위임하다시피 했고 이로써 실질적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었던 최순실이란 여성은 각 정부부처는 물론 민간 기업의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가 하면 명문대학에까지도 입김을 작용할 정도로 가히 전방위적 실세로 군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일이든 가능했고 국내 거대 기업들조차도 무릎을 꿇리고 거액을 받아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대통령이 아무리 머리에 든 게 없고 자질미달이라 할지라도 어릴 적부터 친분 있던 이유만으로 일개 민간 여성에게 그토록 국정을 농단하도록 방조를 넘어서 적극 돕기까지 했을까 하는 것이다. 그 두 사람만의 석연치 않은 내밀한 관계를 두고 그래서 말들도 많다. 결국 선출직인 관의 대통령은 전국적 촛불집회의 퇴진 요구 끝에 국회 의결로 탄핵을 당했고 민 측 대통령은 수감되어 특검 수사를 받는 지경을 맞고 말았다. 잔잔했던 물은 힘을 합쳐 배를 띄우고 순항을 기원했건만 오만방자한 국정운영으로 자신을 띄워주었던 물을 화나게 함으로써 뒤엎어진 꼴이다. 이제 남은 일은 현재의 조속한 탄핵결과와 농단에 연루되었던 모든 범법자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권력자들이 개, 돼지로 이죽했던 민초들이나만치 그저 무시하고 억누르면 된다했을 터이나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그 민초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남으로써 관민공동 정부는 사상누각처럼 맥없이 허물어졌다.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는 권력독점의 문제로 지탄받고 있는 언론, 검찰, 재벌 등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것의 개혁 없이는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악순환이 계속 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말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어느 노선이나에 따라, 어느 입장이냐에 따라 속내가 다를 수 있겠으나 진정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권자인 올바른 민주국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 더 이상 구차한 이유를 들이대며 개혁을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정권이나 패거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정치, 이제 우리 정치인과 국정관계인 모두는 작금의 상황을 철저한 자기반성과 반면교사로 삼아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는 자세로 일해줄기를 바란다. 자신을 띄워준 물을 알보다가 뒤엎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다.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관참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jay0810@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의 오탁을 잡아라>
이달부터 맥군의 오탁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E-mail _jay0810@hanmail.net **Fax** _ 063) 911-1856

협찬업체
베니키아 아리울 호텔 063-464-2005~7_ 숙박권
다이도 063-452-3800_ 식사권
오죽 063-464-5625 _ 식사권
하이트진로 063-453-5111_ 맥주
미즈커피 063-446-2867_ 음료권
바나나팩토리 070-4274-8839_음료권
커피점빵 063-468-1776_음료권

* 군산 하이트 진로에서 제공하는 맥주를 받고 싶은 구독자께서는 신분증을 지참(미성년자 불가)하시고, 매거진군산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직접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이벤트 당첨자

* 응모시 주소, 연락처, 원하시는 상품을 필히 기재해주세요.

지난 호 크로스워드 퍼즐 당첨자

최준희	박지웅	고은경	김미옥	이효선
김수연	이아랑	한애리	다인	정우민
한성봉	노경택	최진선	유재상	조용주



루이까스텔 군산상설점

70%~50% SALE

구매금액별 사은품증정

- 매장 방문고객 - 골프 tee
- 10만원 이상 구매고객 - 양말증정
- 30만원 이상 구매고객 - 볼마커, 열쇠고리 택 1
- 50만원 이상 구매고객 - 우산, 수건세트, 골프장갑 택 1

■ 신세계, 롯데,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단체주문 특별우대※



위치 : 중앙로 123 (개복교회 앞) TEL. 063) 443-0877

배포처

군산매거진은 매달 초 1~3일에 발간되며 아래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발간되는 매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원도심_신포우리만두 063-445-0389
골드북권방 063-445-1212
던킨도너츠 063-443-7887
미다원 063-462-2132
우리문고 063-445-0031

나운동_비달해어 063-461-7015
한길문고 063-463-3109

은파_파라디소페르두또 063-471-8525
유원지_산타로사 063-462-9062
뮤직포유(RED HAT) 063-466-8202

기 타_군산역
군산CC 063-472-3355
커피집빵 063-468-1776
다이도 063-452-3800
군산근대역사박물관 063-443-8283
고우당커피숍 063-443-1042
아리울 웨딩 063-453-3200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매월 초 발행되며 위 목록의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타지역 및 맥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홈페이지 www.maggun.com 의 정기구독 코너에 성함, 연락처, 주소와 입금자 성명을 남겨주시거나, 매거진군산 (063)445-1856으로 연락주시면 1년간 매달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일 년 배송료는 25,000원입니다.

입금처_ 신한은행 110-327-977900

예금주_ 아이씨엠 이진우

광고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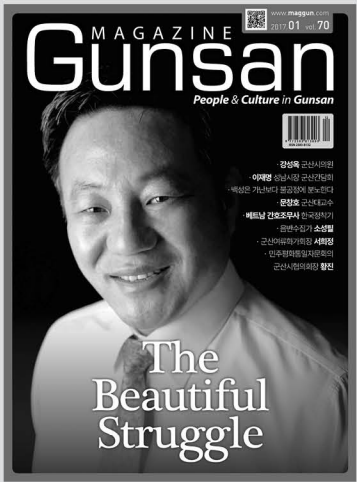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_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jay0810@hanmail.net



Vol. 70 | 2017.01



발행인·편집장	이진우	jay0810@hanmail.net
디 자 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진현태	gkfp3456@naver.com
	김동섭	nan901125@naver.com
주 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시 민 기 자	조종안	chongani@hanmail.net
상 임 고 문	이희찬	lhc-good@hanmail.net
문 화 디 렉 터	이화숙	lila3006@hanmail.net
시 민 기 자	배지영	okbjy@hanmail.net
시 민 기 자	이생곤	grandlee@kmni.co.kr
시 민 기 자	심권택	sys2091@daum.net
자 유 기 고	이춘우	kinkyfly@naver.com
컬 럼 니 스 트	온승조	gsforum@hanmail.net
컬 럼 니 스 트	이영진	younggeen2@naver.com

제작_ ICM www.creativemind.kr / (063)445-1856

주소_ 전북 군산시 중앙로 1가 23-11

출판신고번호 467-2011-000002

인쇄_ 진포인쇄 (063)471-1318

온라인_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번호_군산 라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디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PING®

핑 골프웨어 군산수송점

GRAND OPEN

20만원이상 구매시 고급양말 증정/30만원 이상 구매시 골프볼(2pcs) or 골프우산 증정

PING 골프&스포츠 정상·이월 복합매장

신상품

30% SALE (일부품목 제외)

이월상품

50% SALE (일부품목 제외)

핑 골프웨어 군산수송점

전북 군산시 수송동 외환은행 옆
Tel.063) 463-3800



군산에서도
‘이토록 멋진 마을’
함께 꾸면 달라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의회 의원 **강성옥**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햇살은 사람들 가까이에 있고 싶다. 대낮에는 회사나 학교, 아파트의 유리창에도 매달린다. 한겨울이나 장마철에야 대접 받는 신세. 시인 김남주는 달랐다. 햇살에 손을 뻗었다. 불을 부본다. 시인은 목에 감기는 햇살을 누이가 짜준 목도리라고 여겼다. 입술에 닿는 햇살은 그녀와 주고받던 옛 추억의 사랑이라고 했다. 창살에 비치는 햇살은 특별했다. 감옥에서는.

1990년, 스물세 살 청년 강성옥씨도 감옥에 있었다. 노태우의 민정당, 김영삼의 민주당, 김종필의 공화당이 합쳐진 3당 합당 반대 시위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전교조를 지지하고, 철탑에 올라가서 시위하는 ‘우민주철’ 노동자들을 지원했다는 죄목이 따라붙었다. 집까지 들이닥친 경찰은 자고 있는 강성옥씨를 끌고 갔다.

“야 너 숨겨놓고 뭐 먹지? 단식하는 놈이 왜 이렇게 팔팔하냐?”

교도관은 말했다. 민자당 해체 촉구 단식 8일째. 운동 시간에 족구를 하던 강성옥씨는 억울했다. 물과 소금만 먹고 지내는데도 처지지 않았다. 그는 형기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혼거 방에서 여럿이 지냈다. 사회에서 चुप्पी이었던 이가 강성옥씨 손을 붙잡고 자주 돌리는 통에 춤을 추었다. 면회 온 어머니가 눈물바람을 하면, 그는 “걱정마세요, 투쟁!”하며 웃었다.

“1987년에 군산대학교 미술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데모 안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6월 항쟁이 일어났잖아요. 87년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미술학과 최초로 수업거부를 주도했어요. (웃음) 성적표가 나왔는데 다 F예요. 어렸을 때부터 로봇 만화 그려서 친구들 보여주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림이 좋아서 미대에 갔는데 학점이 부족해서 졸업을 못 했어요.”

강성옥씨가 대학 5학년이던 1991년, 그의 후배들이 학교 안까지 들어와서 사찰하던 안기부(지금의 국정원) 직원을 붙잡았다. 학생회실 한 귀퉁이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한 뒤에야 풀어줬다. 군산대 역사상 가장 많은 전투경찰과 사복경찰들이 학교 근처에서 진을 쳤다. 폭력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강성옥씨는 그 일로 수배자가 되었다.

집에도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강성옥씨는 학교 안에서만 자유로웠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학교 밖 세상도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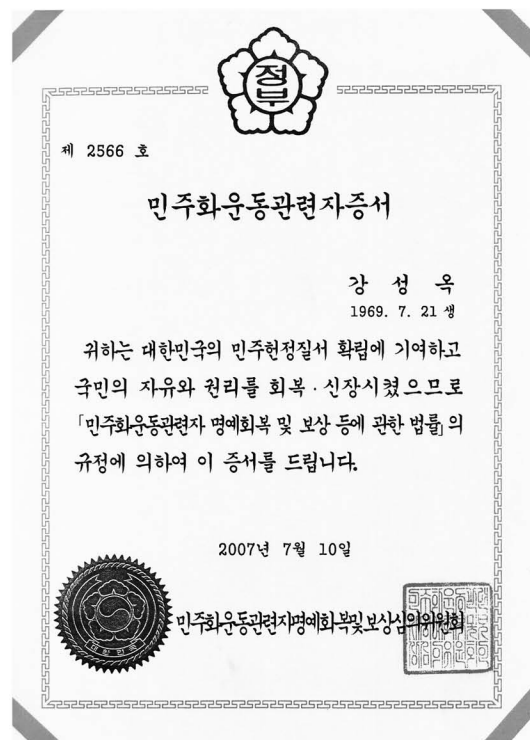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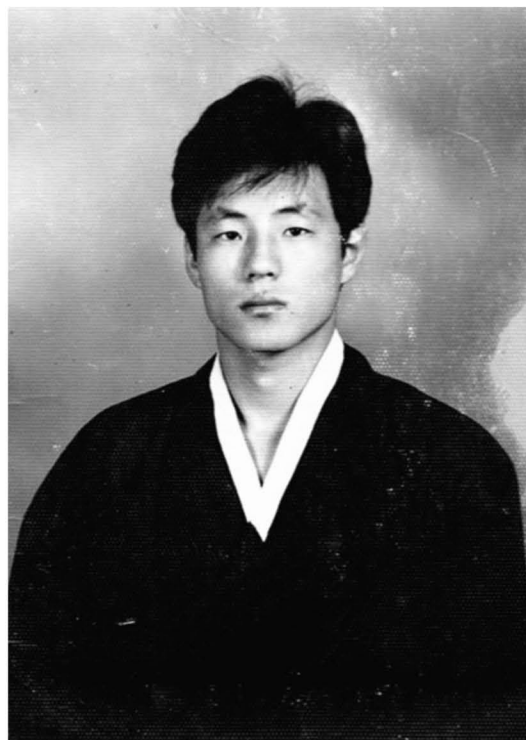
그는 스물여덟 살에 입대했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현역 입대 불가능, 군산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소집 해제 뒤에는 군산사랑 청년회,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미래발전연구소에서 일했다.

“결혼하고, 사회인이 된 뒤에는 급식소 봉사를 가끔 다녔어요. 유치원 다니는 저희 큰애보다 어린 애가 엄마랑 반나절을 걸어서 와요. 그 애기가 급식소에서 먹는 밥이 그날 먹는 유일한 밥이래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정치를 해서 애들에게 밥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은 못 했죠. 그런데 그 잔상이 항상 뇌리에 남아 있었어요.”

대학에서 제적당했던 강성욱씨는 민주화운동 관련 법령이 생기면서 학교에 복학할 수 있었다. 16년 만에 졸업한 그에게 날아온 또 다른 희소식. 국가에서는 ‘민주화운동 공로자’라고 인정을 해주었다. 2006년, 그는 군산시의회의원이 되었다. 급식소에서 만난 아이 덕분에 분야는 정확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하는 게 당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2명 중 3명은 사회복지사 출신. 거기에 행정복지위원장을 지낸 의원들도 있었다. 미술을 전공한 강성욱씨는 문화예술영역인 축제를 자기 분야로 삼았다. 그는 축제마다 참여 인원이 20만에서 30만이라고 하는 통계에 의문을 품었다. 관광버스가 대야에서 군산까지 빼곡하게 서서 사람들을 태우고 있다고 해도 그만큼 될 수 있으려나.

“마임축제로 유명한 춘천에 몇 번 갔어요. 광주 충장로축제나 김제 지평선축제도 여러 번 가 봤어요. 그러고나서 제안했죠. 다른 지역에는 없는, 군산만의 축제를 하자고요. 군산은 근대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축제를 하자고 했어요. 몇몇 사람은 ‘잘못하다가는 친일파 된다’고 했어요. 대부분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시정질문도 하고, 군산 시장을 의회에 출석하게 해서 토론도 했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군산시 축제 발전 조례’를 만들었어요. 너무 많은 군산의 축제부터 정비 하자고 했죠. 자동차 엑스포나 벚꽃 축제도 없었어요. 축제를 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하고, 끝나고 나서는 사후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군산시는 강성옥씨가 제안하는 근대문화 축제를 부담스러워 했다. “명칭은 새만금 축제, 장소는 근대역사박물관 주변에서 하자”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름과 내용이 따로 노는 축제였다. 군산은 호남 최초로 만세운동을 벌인 곳, 옥구농민항쟁의 역사를 가진 도시. 강성옥씨는 독립군과 미선공, 만세운동 체협 등 항일역사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제안했다.

행정을 담당하는 군산시에서 강성옥씨의 제안을 받아줬다. 형태와 내용을 갖춘 축제는 많은 사람을 거쳐서 ‘군산 시간여행축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가 근대문화 축제를 제안하고 시작한 지도 7년. 여행자들은 축제가 아닌 기간에도 군산에 오면, 지난 역사를 볼 수 있다. 백여 년 된 일본식 집을 고쳐서 만든 군산 항쟁관까지 들어섰다.

“수탈당한 역사도 우리 역사예요. 그렇지만 일제 강점기에 호화롭게 산 일본인들의 흔적만 복원하는 것은 경계해야죠. 군산 사람들은 다 빼앗기면서도 일제에 저항 했어요. ‘군산 시간여행축제’에 와서 즐겁게 놀아야죠. 그렇게 웃으면서도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항일이라는 중심을 가진 축제로 계속 하다보면, 진짜 제대로 된 축제가 될 거예요.”



군산에만 있는 것은 또 있다. 강성욱씨는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 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모르는 분야라서 공부부터 했다. 장평위(발달장애 성인 평생교육기관 설립추진위원회) 송영숙 사무국장과 의논하고, 포항시 사례를 참고해서 구체화 시켰다.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 없는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을 위해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관이 지어지고 있다.

강성욱씨는 '아동학대 방지 조례'도 만들었다. 다른 지자체들은 국비만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군산시는 예산까지 보태서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도록 법제화 시켰다. 그가 관심을 두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아이들과 청소년들.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이 돈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수영장 만들었다. 옛 KBS 자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세워지도록 도왔다. 어린이 극장, 어린이 숲 체험장도 만들었다.

“우리 미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투표권이 없으니까 예산이나 시설 면에서 확실히 관심을 덜 받죠. 군산이 어린이 행복도시잖아요. 제가 기본적인 방향을 많이 제시했어요. (웃음) 언론에서는 저보고 ‘어린이 행복전도사’라고도 하거든요. 2016년에는 발달장애 친구들이 직접 글로 쓴 감사패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준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를 보호하는 의정활동을 했다고 해서 받은 두 개의 감사패는 저한테는 정말 특별하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조례도 만들었어요. 지난 여름 내내 청소년들과 토론해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통로를 만든 거죠. 핵심은 청소년의 참여예요.”

3선의 시의원. 강성욱씨는 많은 조례를 만들었다. 자신이 구상하고 연구한 것을 시의 행정으로 끌어들이어서 실현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때로는 전문가들, 때로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과 같이 토론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그게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민원을 풀려는 시민들의 약 90%는 동네 시의원을 찾는다고 한다. 실생활 정치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정치인 강성욱씨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다. 2016년 12월 30일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37%로 1위를 달리는 전국정당이지만 군산에서는 소수정당이다. 군산 시의원은 5명뿐이다. 당이 하락세를 겪으며 쪼개진 지난 봄, 강성욱씨는 자리를 지켰다. 남은 이들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더불어 콘서트'를 열고, 총선도 치렀다. 요즘은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정치는 우리의 삶 그 자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는 플라톤의 말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서 확 깨우쳤다. 정치인은 우리의 지배자가 아니다. 우리를 대신하는 존재다. 지켜봐야 한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면서 정치를 외면하거나 혐오하면, 우리의 삶만 고달파진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고용불안을 겪은 일본에는 후쿠이라는 지역이 있다. 행복도, 초중생 학력평가, 대출 취업률, 노동자 세대 실수입, 정사원 비율 등등 많은 것이 1위인 곳. 그걸 담아낸 책이 <이토록 멋진 마을>이다. “다 망했어요”라는 도시를 정치인과 동네 사람들이 바꾸었다. 미래가 있는 도시로 만들었다. 군산도 ‘이토록 멋진 마을’이 될 수 있을까. 강성욱씨는 “가능하죠”라고 했다. 여럿이 행동하면 이루어질 꿈, 멋진 꿈을 꾸고 있다.



이재명 시장 “박 대통령이 청와대 나와 수갑 차는 것 봐야”

군산 근대역사관에서 시민들과 간담회 진행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야권의 유력한 대권 잠룡으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월 11일 오후 6시 군산 근대교육관에서 시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강성욱 군산시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과 이진우 <매거진군산> 대표가 공동 주관한 이 날 행사는 추운 날씨에도 시작 전부터 청중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교육관을 가득 메워 입장하지 못한 이들도 많았다.

일부 참가자는 방명록에 '이재명 대통령 시켜라'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대통령 내란죄로 구속수사' '새누리당 의원 전원 사퇴' '관련자 구속, 부당 재산 몰수' '정경유착 재벌 기업 처벌' '정치검찰 청산 및 검찰 개혁' '박근혜 정책 재검토, 폐기' '세월호 7시간 진실을 밝혀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입장해서 눈길을 끌기도.

“이재명 시장은 이 시대의 진정한 흠수저”

행사 시작 전 있었던 자유발언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정천호씨는 최근 군산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로 떠오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폐사 문제를 거론했다. 회사 근무 4년째라는 정씨는 "군산에 전입한 지 4년 됐다. 이번에 직장을 잃으면 어디로 이사할 처지도 못된다"며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100만 범도민 서명운동에 모두 동참하셔서 도크폐사를 꼭 막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대학교 경영학부 이성규 학생은 "나는 이재명 시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기 전부터 관심이 많았다. '친일군사독재 잔재를 청산하겠다. 확실하게 칼질하겠다'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들어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며 "오늘 이 시장님 말씀 듣고 많이 배우러 왔다. 다음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다시는 이번(박근혜-최순실 게이트)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주인 의식을 갖고 정치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순실 딸 정유라가 부정 입학했던 이화여자대학 체육과 학부에 재학 중이라는 강승현 학생은 "박근혜를 탄핵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 그 사람이 우리 문제들을 해결해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 정경유착, 친일과 청산 등에 우리가 모두 주인 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요즘 에스엔에스(SNS) 힘이 세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열심히 살아가는 촛불 시민, 특히 젊은 분들이 마음에 드는 글과 영상에 댓글 한번, 공유 한번 해주시라"고 호소했다.

정일수씨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진 것은 우리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선거 사례를 보면 투표율이 20%~40%대 나오는 곳도 상당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는 정치꾼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번 촛불을 통해서 느꼈듯 국민이 나서면 저들은 말을 듣는다. 우리가 또다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70~80% 이상의 투표율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투표에 참여하면 대한민국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진우 대표는 "강연이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150명 규모의 근대역사관으로 장소를 정했는데 입장하지 못한 분들까지 합하면 족히 1000명 넘게 오신 것 같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재명 시장을 '흠수저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집이 너무 가난해 공장에 들어가 일하면서 검정고시, 사법고시로 인권변호사가 됐고, 대한민



국 최고의 복지 도시로 알려진 성남 시장에까지 오른 '의지의 한국인'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흠수저라는 것.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매국노와 다를 바 없어”

예정시간보다 10분쯤 늦게 도착한 이재명 시장은 "익산 원광대에서 강연하고 오는 길이다. 익산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시민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군산도 누가 주최했는지 비슷하다. 뜨겁게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많은 분이 오셔서 간담회는 틀렸고, 하고 싶은 얘기 그중 일본 얘기를 좀 해야겠다"며 다수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서둘러 체결한 박근혜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북한은 남침했으니 적성국가 맞다. 그러면 일본은 뭐냐. 일본은 북한이 남침하기 5년 전까지 한반도를 침공해서 지배했던 침략국이다. 일본은 우리가 돈 들여 공장도 지어주고 신작로도 만들어주고 했다고 억지를 부린다. 또 있다.

독도 문제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책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일본이 팽창전쟁(대륙진출)을 실행할 때 첫 번째 희생지가 한반도다. 이처럼 군사적 측면에서 여전히 적성국인 일본 군대를 공인하는 군사협정을 맺고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거다."

이 시장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대통령 같으면 협정문(GSOMIA) 서명을 앞두고 고민한다. 그러면 국민이 하라고 권하겠느냐. 그런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나서서 서명했다.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일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매국노 스파이와 다를 게 뭐냐"고 덧붙였다. 이에 한 시민이 "박근혜를 내란죄로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일단 내쫓고 봅시다"라고 해서 박수가 터지기도.

“부당한 기득권들의 거센 저항 뚫고 나가야”

이 시장은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결국, 촛



간담회가 열리는 군산 근대역사관 입구



강승현 이화여대 학생이 자유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소개하는 이진우 매거진군산 대표

불의 힘으로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올 때 수갑을 채워 서울구치소로 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한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은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고통을 이겨낸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맞는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국민의 불평등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선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는 정경유착 등 불공정 고리를 끊고 공정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제대로 배분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여당 일부가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의 중추적인 세력 밑에는 재벌도 있다. 이번에는 공정하고 공평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자"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경제 활성화와 민주주의 발전은 통일이 지름길"이라며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남북교류 중단 등으로 신뢰는 무너지고 통일은 멀어졌다"며 "부정부패로 얼룩진 국가는 내부에서, 신냉전 군비경쟁은 외부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가 부당한 기득권 때문이다. 이번이 기회다. 부당한 기득권들의 거센 저항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족 단위 청중도 여러 팀 눈에 띄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팬클럽 회원들이 행사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입장하지 못한 회원들은 '역전의 명수 군산에 초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9회 말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사랑해요 이재명! 복지강국 이재명! 대한민국 이재명!"을 외쳤다.

사진제공_김호상





김영선(누엔티엔/25)

2012년도 베트남을 찾아온 한국인 남편을 만나 현지에서 결혼하고 그해 입국한 누엔티엔은 국적취득과 동시에 한국명 김영선으로 개명하고 딸 자녀 하나를 둔 새내기 주부다. 그녀가 조은간호학원에 등록한 것은 2015년도 3월. 아담한 체구에 순박한 티가 역력한 그녀는 2016년도 3월에 치러지는 전반기 시험에 응시했지만 고배를 마신 후 실력을 보완하여 9월 시험에 재 응시, 합격을 따낸 노력파다. 그녀는 국내 거주 5년에 이르러 일상적 대화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전문적인 분야에서 더욱 완벽한 국어 실력을 갖추기 위해 수송동 다문화 센터에서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친정인 베트남에는 2년에 한번 정도 가족과 함께 찾아가는데 남편이 베트남어를 전혀 못해 아내인 자기가 통역을 해줄 수밖에 없다며 수줍은 웃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윤지연(딩티띠엠펜/25)

2010년 한국인 남편을 만나 그해 6월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입국한 딩티띠엠펜은 국적취득 후 윤지연으로 개명, 연년생 자녀 둘을 둔 새댁이다. 셋 중 국내 입국이 가장 빨라 거주기간이 길어선지 우리말로 유창한데다가 성격도 명랑하고 용모도 예뻐서 본인이 굳이 베트남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다. 현재 임피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녀는 누엔티엔과 같이 2015년도에 학원 등록, 2016년도 첫 시험에 낙방하고 9월 시험에 합격한 케이스다. 공직에 근무 중인 남편이 출근하면 인근 유치원에 아이 둘을 맡기고 시내버스로 학원에 다니느라 힘은 들었지만 목표가 뚜렷했기에 남들이 놀고 자는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한 끝에 관문을 통과해냈다. 또한 동네에서 인근의 어르신들과 지인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아기 같은 애가 아이 낳아 기른다며 예뻐해 주시고 이것저것 챙겨도 주셔서 그런 이웃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도 들려준다. 그녀에게 한국 생활의 소감을 묻자 전반적 사회관계망이 잘 갖춰져 있지만 특히 교통체계나 의료시설과 수준, 의료보험제도 등이 선진화되어 너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친절하고 인정이 넘쳐 살기가 좋다며 웃는다.



짱티튀닷(24)

베트남에서 자상하고 성실한 한국인 남편을 만나 군산에 거주한지 4년째인 짱티튀닷은 2015년도에 남편의 권유로 학원에 등록했다. 자신도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여러 부업을 알아보던 중 남편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면 안정적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말에 도전 용기를 냈다. 한국어도 능통하지 못했고 교재도 어려웠지만 원장을 비롯한 강사들의 교습을 철저히 따랐고 모르는 것은 질문과 복습을 반복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다. 우리말 의료 용어도 어려웠지만 영어로 된 용어는 더더구나 어려웠음에도 수십, 수백 번의 암기로 완벽히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야 넘어갈 만큼 공부벌레의 모습을 보였고 가정적인 남편은 아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퇴근 후에도 육아를 도맡다 시피 하며 도움을 주었다. 타고난 두뇌도 있었을 터였지만 그녀가 얼마나 공부에 매달렸던지 이선유 원장도 그녀의 합격은 처음부터 기대된 것이라 할 정도였다. 아니나 다를까 2016년도 3월 시험에서 그녀는 단 한 번의 도전으로 합격을 거머쥐었다. 그녀에게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느낀 것을 묻자 종교를 예로 들기도 한다. 불교 국가로 알려진 베트남은 전래 토속신앙이 대세로서 불교가 12%, 가톨릭과 개신교가 7%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는 문제 등으로 개신교와 토착종교 간에 일정부분 갈등이 있다는 것과, 혼사 날, 이사하는 날 등에서 손 없는 날을 택일하는 것은 한국과 베트남이 똑 같은 풍속이어서 신기했다는 말도 들려준다. 짱티튀닷은 현재 국적 취득 절차 중이어서 아직은 한국명으로 개명을 안 한 상태지만 조만간 취득이 될 터여서 예쁜 한국 이름을 생각 중이란다.



백성은 가난 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

글 | 이희찬(상임고문)
lhc-good@hanmail.net

정유년 새해가 밝아왔지만 국민들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의 하락에 따라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와 고용 및 소비악화 등이 서민경제를 위축시켜 국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탄핵정국으로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서 물가상승과 지역감정 대립 및 이념갈등 등도 우려되나 새로운 대통령이 하루 빨리 선출되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촛불민심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에 있다. 박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취임사에서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국민들의 촛불민심은 박대통령 자신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청와대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한데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즉각 퇴진요구 초래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바로 대통령 자신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말 그대로 대통령의 양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밤잠을 설쳐가며 고뇌에 찬 국정을 운영해 왔더라면 오늘날처럼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추운 거리로 나서진 안했을 것이다.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했더라면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음수사원(飲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한다)을 언급한 적이 있다. 박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그 권력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신성한 권력임을 인식하고 소중하고 신중하게 행사했더라면 박대통령 본인의 취임사에서와 같은 국민의 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열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국회에서의 박대통령 탄핵결정을 계기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명분으로 너도나도 나서는 여러 예비 대권주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 눈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질 않는다. 이러한 시선은 예비 대권주자들이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직위에 있으면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국방·외교문제를 비롯해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막연하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남발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거창하거나 그리 어려운 정책도 아니다. 대학입시제도 개선, 임금격차 해소, 소득에 맞는 균등과세, 방사정 비리 척결, 기회균등 보장 등 당장 처해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답답해하고 있다. 정치권이 당리당락을 떠나 진정성을 가지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위로받는 새해가 되기를!

송나라 유학자 육상산은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즉 백성은 가난 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고 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고통분담을 할 각오가 되어있다. 우리민족은 콩 한 쪽도 나눠먹던 국민들이다. 지역, 나이, 이념을 떠나 한 마음이 된 촛불민심은 국민들이 좀 더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나라를 위해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제 정치권은 당리당락과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 국민을 이념분쟁 및 지역감정 등으로 분열시키지 말고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 정치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정치에서 조금이라도 눈을 돌린다면 또 하나의 ○○○대통령이 생겨날 것입니다. 정치에 항상 관심을 가지십시오!”라는 대구촛불집회 에 나타난 초등학교생의 자유발언 외침을 국민들이 되새겨 보고, 앞으로 있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국민들이 위로받는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해에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함께 행복을 기원하며!

고군산군도에 플로팅 주차장 조성해야

[인터뷰] 문창호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위용을 드러난 고군산대교(단동교)

새만금방조제와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국도 4호선 가운데 1, 2호 공구(신시도-무녀도)가 지난 7월 개통됐다. 나머지 3공구(무녀도-선유도-장자도)는 2017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신시도-장자도 사이에는 6개 교량이 세워지고, 도로 양쪽에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다. 고군산군도는 60여 개의 구릉성 섬들이 무리를 이루는 천혜의 '해상공원'이다.

국도 4호선이 완전히 개통되면 도보나 자전거, 차량을 이용한 접근이 장자도까지 가능해진다. 따라서 선유도를 비롯한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부수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와 개발에 따르는 주차난과 편의시설 부족, 환경오염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관광객을 맞이한다면 청정지역인 고군산군도 전체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고군산군도 주변 해역은 최적의 플로팅 주거단지

문창호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가 고군산군도 주변 해상에 친환경 '플로팅 주차장'(부유식 주차장)을 설치하자고 제의해서 눈길을 끈다. 문 교수 연구팀이 작성한 조감도에 따르면 신시1도 플로팅 주차장에 402대를 비

롯해 신시 2도 주차장 174대, 무녀도 주차장 629대, 선유도 주차장 310대 등 총 1215대 주차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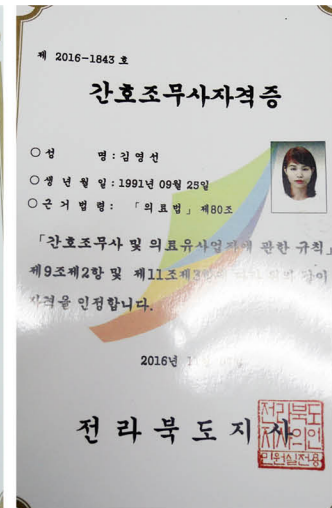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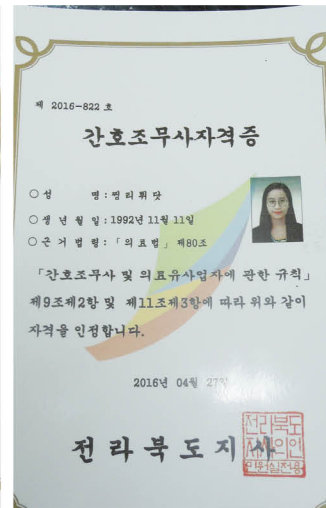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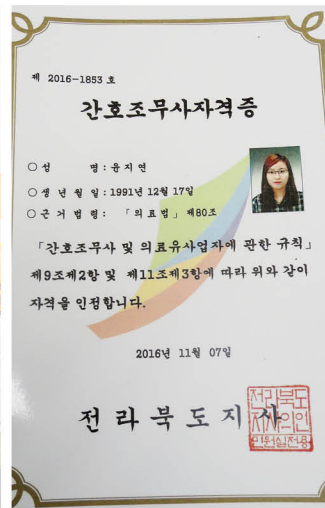
문 교수는 "프로팅(Floating)은 사전적으로 '물 위에 떠 있다'는 의미"라며 "플로팅 건축은 물에 뜨는 부유식 합체(pontoon) 위에 지은 주거 또는 업무를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이어 "수면 위 건물은 일정한 위치에 계류되어 있으며, 각종 전기·상하수도 등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물 위에 인공섬을 만들어 그곳에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한다.

플로팅 건축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 적합한 건축공법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곳(串)과 만(灣)이 끊임없이 연결되는 리아스식 해안에다 섬이 많은 남해안과 서해안은 천혜의 적지라는 것. 그중 군산 지역(고군산군도) 해안은 수심이 일정하고 해안선이 만을 형성하고 있어 플로팅 주차장뿐 아니라 최적의 플로팅 주거단지로 평가된다.

플로팅 건축의 장점은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건축물이 물 위에 떠 있으므로 이동이 가능하며 수위변화 대처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육지 건축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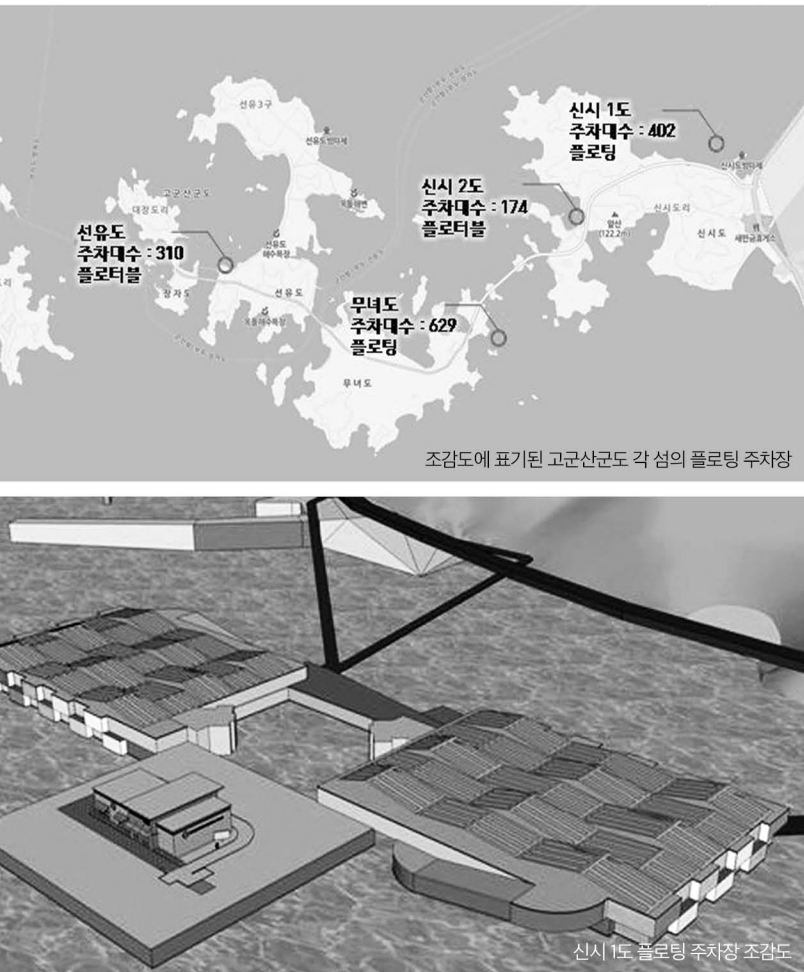
이선유 원장과 쟁티튀닷, 김영선, 윤지연



다문화 일자리 문호개방 필요

위 김영선, 윤지연, 쟈티튀닷 3명의 새내기 간호조무사들은 이미 자격증도 발급받아 취업을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다문화주민에 대한 국내 의료기관의 문호는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언어 소통과 문화적 차이 등에 있어 근거 없는 선입견이 큰 원인이겠으나 우리 한국인도 외국에 나가 거주하는 경우도 늘고 있고 현지 취업 시 실력이 갖춰져 있음에도 단지 이방인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례가 많았을 터인즉 글로벌 지구촌으로 국가 간, 인종 간의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소통이 폭넓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막연한 선입견만으로 우리 스스로 장벽을 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선유 원장에 따르면 위 3명의 조무사들은 이론 못지않게 특히 실습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정도여서 당장 취업한다 해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한다. 따라서 취업 후 현지 의료 문화에 적응하며 숙련도를 더해가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터이고, 또한 무엇보다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는 베트남 다문화주민의 의료기관 이용 시 통역으로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녀들만의 강점을 터인즉 아무쪼록 위 3명의 새내기 간호조무사들이 안정적인 의료기관에 조속한 취업을 이뤄 새로운 조국에서의 정착과 가정의 안정을 이루고 사회에 널리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조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조은간호학원
군산시 수송로16(차병원 옆)
T.063)442-9895



달리 주변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없다는 것도 큰 매력이다. 문 교수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친환경 건축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일자리 창출과 주거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인다.

특히 교량으로 연결되는 신시도-무녀도-선유도-장자도 등의 주변 섬 20여 개가 병풍처럼 서로 감싸며 큰 바다 바람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어 플로팅 건축물 안전에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아래는 지난 24일 군산의 한 카페에서 만난 문창호 교수와의 인터뷰와 이메일로 보내온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건축 방식, 물과 공생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플로팅 건축에도 종류가 있나?

"건축물 위치와 조건에 따라 플로팅 건축(Floating Building), 수륙양용 건축(Amphibious Building), 플로터블 건축(Floatable Building)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그중 '플로팅 건축'은 부유 시스템

(pontoon)을 갖고 있으며, 항상 물 위에 떠 있는 거주나 업무를 위한 건축물로 정의될 수 있다. '수륙양용 건축'은 강둑이나 호수 변에 위치하며, 자동차로 접근이 가능하고, 보트를 타고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다. '플로터블 건축'은 홍수 때 침수되지 않고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부유식 구조이다."

기후변화를 예로 들면서 플로팅 건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가 그치지 않고 있다. 태국에서는 2011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고 760명이 사망하는 대홍수가 있었다. 독일에서는 2013년 6월 폭우로 유럽 제2의 다뉴브 강 수위가 50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면서 수만 명이 대피했고 사망자도 수십 명 발생했다.

따라서 건축 방식을 보다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제방을 쌓고 완전하게 차단하는 종전의 방식(against water)보다 차라리 물과 공생하는 방식(with water)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강이나 바다 수위가 높아지는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플로터블 건축(floatable building)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2008년경부터 플로팅 주차장 연구 시작

플로팅 건축 발상지는 어느 나라인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950~1960년대 미국에서 벌목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뗏목으로 이동하다가 허드레 나무를 재료로 물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한 게 시초로 전해진다. 그 후 장점은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건축으로 발전했다. 요즘엔 해수면이 육지보다 높은 네덜란드를 비롯해 독일, 스웨덴 등이 활용도가 높고 기술 면에서도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플로팅 건축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95년 군산대학교에 부임해서 건축과 도시의 특성화에 고민했다. 다른 지역 대학과 차별화할 수 있는 건축 교육과 연구에 대해 전념하다가 군산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했다. 군산은 바다와 접한 도시이고, 많은 호수가 있어 물이 하나의 건축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2004년부터 5년간 교육부 교육사업을 학과 교수들

과 함께 연구하면서 주제를 '수·해양 건설'로 정했다.

후속 사업으로 2010년부터 한국 건설교통기술진흥원의 지역 혁신과제로 '플로팅 건축'을 제안하여, 다른 대학교수, 참여기업들과 팀을 이뤄 5년간 관련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유럽·미국 등의 다양한 플로팅 건축(주택, 카페, 호텔, 주차장 등) 모델을 답사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플로팅 건축의 무한한 가능성도 확인했다. 군산이 플로팅 건축의 메카가 되기를 희망한다."

플로팅 주차장은 언제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나?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사업이 대두되던 2008년경부터다. 교량 완공으로 고군산군도가 개발되면 관광객 증가에 따라 이곳저곳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그렇게 건물을 지으려면 산을 절개하든지 깎아내야 하므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최소한의 자연 훼손을 고민하다가 착안한 것이 일거리 창출에도 도움 되는 플로팅 주차장, 카페, 식당, 호

텔 등이다. 앞으로 주거시설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 대규모 플로팅 주거단지 많아

플로팅 건축물이 여가생활 및 힐링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여가생활을 산보다는 물에서 즐기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양공간은 개발 잠재력이 높은 미개척 분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마리나를 중심으로 수상 레저가 시도되고 있다. 물을 본격적으로 즐기자 할 때는 수변보다 수상으로 다가가는 것이 최상이다."

"플로팅 주택, 플로팅 호텔(펜션), 플로팅 이벤트를, 플로팅 마리나, 플로팅 레스토랑, 플로팅 전시관 등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플로팅 주거단지 주민들과 대화에서 '힐링' 환경의 일면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거주 이유로 '평화로운 분위기'가 좋아서, '이웃 사람이 좋아서', '자연환경이 좋아서' 등을 들었다. 짧은



플로터블 주택 사례(뉴올리언스,미국)

답사 기간이었지만 플로팅 주택 생활이 매우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네덜란드는 풍차의 나라다. 그곳의 플로팅 건축 역사가 궁금하다.

"국토 상당 부분의 레벨이 해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는 플로팅 건축 역사가 깊다. 잔잔한 바다, 강이나 운하에 다양한 형태의 플로팅 또는 플로터블(floatable) 건축이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플로팅 주거단지가 많다.

강의 고수부지에 지어져 도로(자동차)와 수상(보트)으로 출입이 가능한 수륙양용 주택은 홍수 시에는 수위에 맞춰 떠오를 수 있는 플로터블 주택이다. 폭이 넓지 않은 운하에 건립된 플로팅 주거단지(단독주택)도 있다. 지하층은 2/3쯤 물에 잠겨있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여 쾌적한 침실로 이용되고 있다."

플로팅 건축물도 육지 건축물처럼 등기 가능

플로팅 건축의 국내 현황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플로팅 건축은 2011년 준공된 세빛둥둥섬이다. 디자인이나 건축적인 측면보다 재정, 운

영, 정책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세빛둥둥섬은 유리한 재생에너지 활용이나 친환경 디자인 등의 요소는 별로 보이지 않고, 야간의 현란한 조명이나 조형성을 추구하는 외형 디자인에만 치우친 느낌이 있어 아쉽다.

또 한강에는 서울마리나, 플로팅 스테이지 등도 괜찮은 플로팅 건축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강의 부유식 매점, 바다 낚시터의 부유식 펜션, 유원지 호수의 부유식 간이건물 등은 주요 구조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부유식 방파제나 부유식 부두 등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제작되어 비교적 안전하며, 이를 플로팅 건축의 한체로 이용하면 안전한 부유식 건축물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서울시는 한강에 다양한 플로팅 구조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여의도 근처에 여객선 터미널을 플로팅 구조물로 추진할 계획을 진행 중이고, 밤섬을 찾아오는 철새를 관찰하기 위한 플로팅 구조물로 생태관찰 데크를 현상공모로 진행하여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북 포항의 구항에도 대규모 플로팅 해양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플로팅 건축물의 안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플로팅 건축은 다각적인 조사와 시험을 거쳐 안전이 확보된 수면에 설치하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전기, 하수도 등 오·폐수 처리와 재난 대비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그래서 여간한 태풍이 불어도 안에 들어가면 육지의 건축물처럼 안락감이 느껴진다. 태풍이 오는 날 스웨덴의 플로팅 호텔에서 묵은 적이 있는데, 불안이나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육지 건물은 신축 후 법원에 등기를 낸다. 플로팅 건축물도 가능한가?

"그동안 플로팅 건축물은 건축법 등 제도상의 미비로 허가(등기)를 낼 수 없어 재산권 인정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플로팅 건축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다. 군산대학교 플로팅 건축연구단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6년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부유식 건축물 특례'가 신설됐다. 플로팅 건축의 법적인 장애가 제거되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에 플로팅 영빈관, 플로팅 홍보관 등이 필요한 이유

- 군산에 플로팅 영빈관, 플로팅 홍보



선유도

관, 플로팅 수영장 등을 조성하자고 했는데?

"외지 손님에게 호텔 잡자리와 음식 대접만으로는 감명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청암산 아래 저수지(군산호수)에 플로팅 건축으로 숙소를 지어 군산을 찾아온 내·외빈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군산시에 제안했다. 선진지 방문과 연구 끝에 얻은 결론이다. 물안개 자욱한 청암산 기슭이 한눈에 들어오는 저수지에 호텔을 지으면 천혜의 아름다운 풍광에 흠뻑 젖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적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군산 내항에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는 부잔교(뚝다리)가 있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 오르내리는 부잔교는 일제가 더욱 많은 쌀을 가져가기 위해 플로팅 건축과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진 부조물이다. 이처럼 아픈 역사의 현장이자 경치도 뛰어난 내항에 플로팅 홍보관과 수영장을 설치하면 이 모두가 조화를 이뤄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것이다."

덧붙임. 문창호 교수는 1995년 군산대학교에 부임. 2004년~2009년 군산대 건축과, 토목과 교수진이 참여하는 교육부 교육사업 수·해양 건설 교육 사업단 단장과 2010년~2015년 군산대가 주관하고, 한국해양대, 전남대가 참여하는 국토부 연구사업 '플로팅 건축 연구단' 단장 역임했다. 2016년 현재 군산대 플로팅 건축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플로팅홍보관 사례(로테르담)



플로팅수영장 사례(덴마크)



산이 절개되고 있는 고군산대교 공사 현장(8월 촬영)



선유도 선유봉에서 바라본 무녀도 신시도 방향

음반수집가 소성필 씨

“대중가요 심의, 국민이 해야 예술적 가치 돋보여”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박정희 군사독재 18년,
대중가요 수난사



예로부터 우리는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었다. 대장간에서 풀무질하면서도 불렀고,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닦으면서도 불렀다. 논에서 모를 심거나 김매기 할 때도 불렀고,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면서도 불렀다. 방아를 찧으면서도 불렀고, 부엌에서 음식 만들면서도 불렀다. 상여 나갈 때도 불렀는데 상두꾼들의 <상엿소리>가 그것이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의 애환이 담긴 노래가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세월과 함께 변해온 것이 대중가요이다.



논에서 모심으며 노래하는 시골 아낙들(1980년대)

조선 시대 <농부가>에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네가 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라는 대목이 있다. 가사에 나타나듯 당시 백성들은 노래를 통해 여색에 빠진 현종(1834~1849) 임금과 기침 반월(半月)이를 풍자하고 있다. 현종은 정사는 돌보지 않고 밤마다 반월이와 밀월을 즐겼다고 한다. 시중에 ‘제가 무슨 반달이라고’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으나 임금을 비웃었다고 잡아들였다는 기록은 없다. -기자 말

억압과 통제로 권력 유지할 수 없다는 것 보여줘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로 온 국민이 답답해하고 있는 요즘, 100년 시차를 두고 이 땅에서 일어난 두 대규모 시위가 만감을 교차하게 한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삼일독립만세운동과 최근(10월 29일~12월 24일) 전국에서 1000만 가까운 시민이 참여한 촛불집회다. 삼일독립만세운동이 빼앗긴 국권을 되찾는 단초가 됐다면 촛불집회는 촛불 혁명으로 거듭나면서 이 나라 주인은 대통령도, 정치인도 아닌 국민 모두임을 깨우쳐주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전인권을 비롯해 DJ DOC, 이은미, 권진원, 이승환, 한영애 등 20여 명의 인기가수가 번갈아 출연, 분노한 민심을 달래고 시민들의 마음을 결속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마야는 <벓놀이>를 부른 뒤 ‘2014년 4월 16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고, 안치환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하야가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개사하여 분위기를 북돋웠다. 양희은은 1970년대 대표적 저항가요인 <아침이슬>로 촛불 시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유신 정부 시절 금지된 음반들



인간승리 Vietnam 새내기들

간호조무사 3선녀의 한국 정착기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나운동 소재 조은간호학원에 경사가 났다. 학원생 중 베트남 새내기들 3명이 국가고시로 치러지는 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학원의 이선유 원장에 따르면 설립 6년에 걸쳐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합격률 90%를 상회하는 명문학원으로 발돋움했으며, 특히 지난 9월 실시된 간호조무사 시험에서는 50명이 응시, 49명이 합격하는 유례없는 성과를 거뒀다 한다. 국내에 간호조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67년도로서 간호 분야의 부족한 인력을 조속히 충당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시행 초기 만해도 시험이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으나 2015년도부터 난이도가 높아짐으로써 전국적 합격률도 60%미만 대에 그치고 있는데 이로 볼 때 조은학원이 거두고 있는 높은 합격률은 이론과 실기에 있어 타 학원과는 차별화된 이선유 원장만의 실무 중심 교육방식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간호조무사 교재는 필자도 펼쳐보았지만 어려운 의료용어 일색인데다가 영어와 한자도 섞여 있어 한국인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듯한데 우리말 자체도 완벽치 않은 베트남 여성들로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간호조무사자격을 취득, 인간승리를 이룬 것은 군산은 물론 전북에서도 처음이거니와 전국적으로도 단 세 번째 사례라 한다. 따라서 해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타 다문화가정에도 긍정적 동기부여가 될 터여서 당사자는 물론 이선유 원장으로서도 남다른 자긍심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성일·엄앵란 주연 <동백아가씨>영화 주제가 음반

박사모, 어버이연합 등 ‘친박 단체’는 유신 시절 내내 금지됐던 <아름다운 강산>(신중현 작사·작곡)을 부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다고 한다. 그 모습을 TV를 통해 본 기타리스트 신대철(신중현 아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래의 탄생 배경을 소개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요지는 원작자 정신을 훼손하기 때문에 ‘친박 세력’이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 이에 대중가요 의미를 내세우며 신씨 주장을 반박하는 여론도 있다. 이 모두가 박정희 군사독재가 남긴 생채기가 아닐 수 없다.

유신 시절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퇴폐적이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체제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금지곡 딱지가 붙었던 주옥같은 노래들. 박정희 정권은 1975년 5월 반대 및 비방

을 일절 금지하는 긴급조치 9호를 발표하면서 예술 심의를 강화했고, 가요 222곡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그 노래들은 40년이 흐른 지금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촛불광장에서 불리고 있다. 억압과 통제로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음이다.

금지곡 원조는 일제강점기. 동요, 찬송가 등도 통제당해

노래는 널리 불리기 위해 만들어지고 또 존재한다. <아름다운 강산> 역시 많은 사람이 즐겨 부르는 대중가요이고, 원작자인 신중현이 민족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누가 부른들 어떠랴. 다만 아무리 명곡이라 해도 시기와 분위기에 따라 의미도 느낌도 달라질 수 있다. 노래도 때

와 장소가 있다는 얘기다. 선곡도 필요하다. 문상객이 상가에서 <노래가락 차차차>를 부르면 안 되듯.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풀은 내 마음/ 나뭇잎 푸르게 강물도 푸르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있고 네가 있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 희망을/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풀은 내마음”

<아름다운 강산> 1절 가사이다. 회심의 역작으로 시대적 아픔과 시련이 서린 노래이다. 신중현은 1970년대 초 청와대로부터 박정희 대통령 노래를 만들어 달라는 제의를 받지만 거절한다. 그 후 ‘만들지 않으면 다친다’는 협박까지 받았으나 재차 거절하고 권력자를 찬양하는 노래는 만들 수 없지만, 대한민국을 찬양하는 노래는 만들 수 있다는 의지로 <아름다운 강산>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노래 또한 금지곡이 되고 만다.

금지곡 원조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제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거나 군중심리를 자극하는 노래는 금지곡 딱지를 붙였다. 심지어 동요와 찬송가까지 통제했다.

민족 수난의 역사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목포의 눈물>. 이 노래는 오케이 레코드사가 가사를 모집, 응모작 3000여 편 중 목포 출신 문일석 시(詩)에 작곡가 손목인이 곡을 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문일석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전사 300년을 맞아 1

절에 목포의 낭만과 꿈을, 2절에 민족의 원한을, 3절에 이충무공 추모의 정을 담았다고 한다. 음반수집가 소성필(57) 씨 이야기를 들어본다.

“목포의 눈물은 민족의 원한과 슬픔을 달래줬던 노래죠. 1935년 이난영(1916~1965)이 불러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2절의 ‘삼백 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구절을 문제 삼습니다. 일본 경찰이 작곡자와 작사가를 불러 문초했는데 문일석이 기지를 발휘해 ‘원한’은 ‘원앙’의 잘못 표기라고 해서 위기를 면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순신 장군이 노적봉으로 속여 왜군을 물리쳤던 ‘노적봉’을 ‘임 자취’로 표현하는 등 원한과 추

모의 노래를 낭만과 사랑의 노래로 위장했던 것이죠. 일본에서도 발매되는 등 음반이 3만 장 이상 팔렸다는 기록을 보면 금지곡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 집권 18년, 그 시절 대중가요 수난사

광복 후 권력의 대중가요 검열 및 규제는 5·16 군사쿠데타(1961) 이후 더욱 강화된다. 대중가요 변천사에서 박정희가 통치했던 18년(1961~1979)이 가장 혹독한 시련기로 알려진다. 건국 이후 최초 방송금지곡은 조명암(본명 조영출)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가 부른 <기로의 황혼>이었다. 방송금지

1호인 이 곡은 1962년 발족한 방송윤리위원회가 공식 금지곡으로 지정한다. 사유는 조명암이 월북 작가라는 것.

1960년 6월, 당시 민주당 정부는 4·19 정신을 기리기 위해 <4월의 노래>를 공모한다. 당선작은 ‘눈부신 젊음은 훈이 목숨을 바쳐’로 시작되는 강태욱 씨 작품이었다. 정부는 이 노래를 각 학교 교과서에 수록하는 한편 국가기념행사 제창곡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세상에 널리 불리기도 전에 5·16 쿠데타로 군가에 묻혀버리고 만다. 김주열 묘소 참배객들을 용공 분자로 몰아세웠던 쿠데타세력은 대학생들이 한일협정반대시위 때 <4월의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자 아예 금지
곡으로 묶어버린다.

1960년대 권력의 대중가요 검열은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그 시절 대표적인 금지 가요는 1964년 이미자가 불러 100만 장 넘는 음반 판매 기록을 세웠던 〈동백 아가씨〉이었다. 금지 사유는 왜색가요라는 것. 한일회담 반대 여론이 높을 때여서 자신들이 민족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여론몰이였다는 게 중론이다. 1967년에는 음반법이 공포되고 이 법에 따라 108곡이 금지곡으로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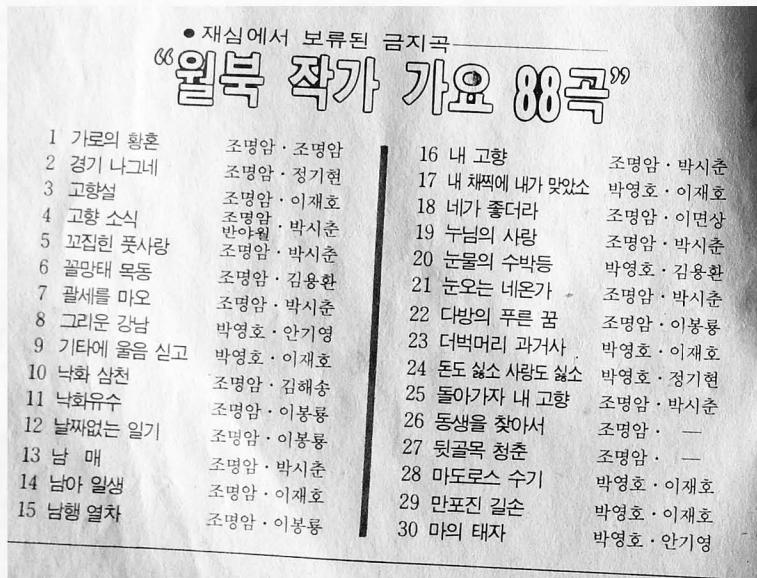
《동백 아가씨》는 금지곡이 된 후에도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지를 청와대로 불러 이 노래를 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10·26 사태 1개월 전인 1979년 9월 박정희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미자가 부르는 노래를 감상하며 즐기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1996년 2월 KBS 제1TV 일요스페셜을 통해 방영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다.

박정희는 1971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정치 연설은 오늘이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다. 온갖 부정선거로 3선 대통령이 된 그는 이듬해 유신 선포로 종신대통령 길로 들어선다. 그리고 유신체제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헌법을 고치고 조선 시대에도 없던 제도를 만들어 사람들의 취향과 마음조차 통제하고 노래를 듣고 부를 자유마저 빼앗는다.

휴교와 계엄령이 반복되던 유신 시대.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박정희



대중가요 규제와 간첩단 일망타진 기사와 나란히 실린
1975년 6월 5일 경향신문 사회면



1987년 금지곡 해제 때 재심에서 보류된 월북 작가 가요

체제에 저항하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김민기의 〈아침이슬〉도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신중현과 염전들의 〈미인〉은 대학가에서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대목을 ‘한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싶네’로 바꿔 부르자 금지곡으로 지정한다.

유신 정부는 퇴폐적이라며 대학생들의 기타까지 압수하면서 수많은 노래에 족쇄를 채웠다. 송창식의 〈왜 불러〉는 시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장희의 〈그건 너〉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이유로 금지곡 딱지가 붙는다. 이금희의 〈키다리 미스터 김〉은 단신인 대통령 심기를 건드린다고 금지곡이 됐다고 한다. 정부는 건전한

대중문화 육성 명목으로 200곡이 넘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하는데 히트곡이 대부분이어서 충격은 더욱 컸다.

“문화공보부는 5일 대중가요를 비롯한 음반, 연극영화, 쇼 등 국민 생활과 밀착하고 있는 각종 공연활동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공부는 이 방안이 아직까지 각종 공연활동의 질서가 문란했던 데 대한 과감한 조치라고 밝히고 건전한 국민 생활과 사회 기풍을 확립하기 위해 예술문화 윤리위의 사전공연 심의를 중심으로 대폭적으로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래 줄임) - 1975년 6월 5일 치 경향신문

위 기사는 고정간접단 검거 관련 기사와 나란히 사회면 톱으로 실렸다. 당시 문공부가 밝힌 정화 방안은 ① 국가의 안전 수호와 공공질서 확립에 반하는 공연물 ②국력배양과 건전한 국민 경제발전을 해치는 공연물 ③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공연물 ④ 사회 기강과 윤리를 해치는 퇴폐적인 공연물 등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가요는 눈물과 웃음으로 시대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해왔다. 건국(1948) 전후에는 광복의 기쁨과 분단의 아픔이 담긴 노래가 유행하였고, 70~80년대에는 암울한 시대를 표현한 노래들이 등장했으나 금지곡으로 묶인다. 고달픈 삶과 아픔을 고스란히 담아낸 노래들은 1990년대 들어 월북 작가 금지곡까지 해금되는 등 획기적으로 바뀐다. 10대 청소년들이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K-POP'으로 대표되는 대중음악은 한류 열풍을 불러오기에 이른다.

1980년부터 음반을 수집해왔다는 소성필 씨는 “가곡이나 팝송보다 대중가요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고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이유는 우리 고유의 정서가 깃들여 있고, 서민적인 애환을 공감할 수 있어서가 아닌가 싶다.”며 광복 후 시인과 극작가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월북한 조명암(1913~1993)을 다시 언급했다.

“세광음악출판사가 1987년에 발행한 책 <풀려난 공연·방송 금지가요>를 보면 그해 500여 곡이 해금으로 빛을 보게 됩니다. 재심에서 보류된 금지곡 중에는 월북 작가 가요 88곡도 들어 있어요. 그 중 조명암 선생 곡이 60여 곡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광복 전 <서울노래> <알뜰한 당신> <추억의 소야곡> 등 500여 편 넘게 작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러한 업적에도 친일파니 월북 작가니 해서 주옥같은 작품들이 가려져 안타깝습니다. 작품은 작품으로만 평가하고 감상해야 하는데...”

소 씨는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대중가요 심의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이 해야 더욱 수준 높은 신곡이 발표되고, 작품의 예술적 가치도 돋보인다.”고 덧붙였다.





맨드라미

작가 군산여류화가회장 서희정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서희정 작가는 꽃을 즐겨 그린다. 저마다 다른 자태로, 저마다 다른 색깔로, 저마다 다른 향기로 살아있는 그 꽃들에서 생명의 경이로움과 함께 그윽한 아름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유독 맨드라미에 필이 꽃힌다. 원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달 벚모양의 특이한 꽃 생김새 때문인데 그래서 그녀를 맨드라미 작가라 하는 이도 있다. 지난 11월, 이당미술관에서 5회째 개인전을 가지면서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한 그녀의 작품들은 비전공 작가라는 일각의 네거티브를 일축할 만큼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전문가의 평가도 뒤따랐는데 전시장 안에 간단한 미술 용구를 비치, 아이들이 손수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친절히 지도해 주면서는 남모르는 행복감에 젖어있는 듯 보였다.

서 작가는 경남 통영 생으로 어린 시절 부친의 직장 따라 전주에서 잠시 거주하다가 초등 6학년 때 군산으로 이주하였으니 군산이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학창시절엔 미술반에서만 활동할 정도로 소질을 타고난 그녀는 조용한 성품에 특히 좋아하는 분야엔 외곡 열정으로 정진하는 노력 형이다. 그 세월이 어느덧 50여년, 이제는 전업작가로서 군산여류화가회를 주도적으로 결성(2012/회원15명), 3회째 통영, 광양, 군산 등의 3개 항구도시전을 열고 있는 그녀는 영호남 간 미술전을 통해서 친목과 교류의 폭을 넓힘으로써 문화예술발전에 열정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한다. 그 일환으로 2017년도엔 작년 광양 전시에 이어 9월 중 군산여류화가회 주관으로 통영, 광양까지 초대, 군산에서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그녀는 문화동 소재 자신의 작업실에 매일 오전 10시면 어김없이 나가 작품 구상과 작업에 매달린다. 작업에 빠진 순간만큼은 잠시 세상과 격리된 듯 무아지경에 몰입하게 되는데 그 행복감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유화 작가로서 구상에서 반구상으로 경계를 넘나드는 그녀는 유화의 질감을 살리는 개성 넘치는 특유의 붓 칠로 작가정신을 구현한다.





그녀가 모든 꽃 중에서도 맨드라미를 즐겨 그리는 이유는 특이한 꽃 모양으로 어느 각도에서 빛을 받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신비한 색깔 때문이다. 실제로 그녀의 전시 장이나 화실에는 국화와 해바라기를 비롯한 풍경 그림들 사이로 유독 맨드라미 그림이 많다. '영생', '시들지 않는 사랑' 등의 꽃말을 지닌 맨드라미는 한국에도 흔히 자생하는 식물이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서 거의 사라져 보기 힘들게 되었는데 그녀의 작품 속에서 생명력 있는 자세로 살아나 추억에 젖게도 만든다.

그간 200회 이상의 회원전 및 단체전을 가진 그녀는 다음 전시 작품으로 100호 대작을 준비 중에 있다. 군산예술의 전당 2층에 걸린 100호 그림도 그녀의 작품이다. 결작에 대한 부담감은 항상 뒤따르지만 주위로부터의 작품에 대한 인정과 호평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북돋아 한 때 남몰래 느꼈던 열등감도 눈 녹듯 펼쳐져 이제는 개성 있는 작가로 넘치는 의욕을 보여주는 서희정 작가. 자신이 오늘날 전업작가로 우뚝 서게 된 데에는 이해하고 도와준 부군을 비롯한 가족의 힘이 절대적이었다고 말하는 그녀는 생이다하는 날까지 캔버스 앞을 떠나지 않을 거라며 웃을 때의 모습에서 마치 미술과 결혼한 게 아닐까 하는 뜨거운 열정이 묻어난다.



서희정

개인전

-개인전5회. 부스전1회(베이징)

단체전

-초대전 및 회원전 200회
-한·일 현대미술교류전, 한·중 미술교류전
-사)한국미협 정기전 Kart전시
-전북여성미술인협회, 사)환경미협, 군산구상작가회, 전미회, 사)전업작가회
-사)한국미협전북지회정기전, 전라예술제, 사)한국미협군산지부정기전, 진포예술제
-2013~2016 올해작가100인전
-2014~2016 The Flower전(갤러리 미술세계, 강릉, 제주도 현인갤러리)
-2014 전업작가회 전북도지회 초대전
-2014 전업작가회 영·호남 교류전
-2015 진주 Art Forum아름다운 동향전(진주 시립미술관)
-2014~2016 광양, 통영, 군산 여성작가 교류전(군산여류화가회)
-2016 한라에서 백두까지(제주도 문화회관/한국미협청년분과위원회)
-2016 한국현대미술전(한·중 교류전)"자유비상 꿈을 펼치다"(인사동 라메르갤러리)
-2016 전미회전시(인사아트 서울관)

수상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상2회
-2013 군산예술상(공로상)

역임

-대한민국 코파글로벌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
-전국온고을미술대전 운영위원
-전주문화재단 운영위원

현재

전라북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사)한국미협 서양화분과(분쟁조정위원회),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전북지회 이사, 전미회, 파인아트리회, 전북여성미술인협회, 군산여류화가회 회장, 군산구상작가회 회장, 사)환경미술협회 전북지회 부지회장, 사)대한미협 전북지회장, 전국온고을미술대전 초대작가

서희정 아프리에
군산시 대학로(문화동)145/4F
010-8649-5267



보훈단체 회원과 함께하는 통일좌담회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회장:황진)는 20일(화) 오후 4시 보훈회관 강당에서 보훈단체 회원과 함께하는 통일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통일 좌담회는 지역 통일담론을 형성하고자 보훈단체(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와 민주평통 자문위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되었다.

통일 좌담회는 '북한 주민들이 동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새터민 김정원 강사 강연을 토대로, 북한 노래 및 회원들의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북한의 경제규모 변화추이, 주민생활 및 문화, 탈북자 국내입국현황 등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북한주민의 생활과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새터민 강사를 통해 북한의 실상과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 민족의 동질감을 느꼈으며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고 말했다. 황진 협의회장은 "이번 통일좌담회로 평화통일을 논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리더들의 역할과 확고한 안보관 확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통은 헌법에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으로,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 1981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군산시협의회는 78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2016년에는 통일 논의 활성화와 통일여론수렴을 위해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통일 안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국가의 통일 문제에 자문하고 건의하여 지역의 통일여론 수렴에 앞장섰으며,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통일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연회 및 체험학습, 군산 여성들을 대상으로 통일 골든벨 개최,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행사 및 송년의 밤,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 민주평통 황진 협의회장 인사말

■ 군산시, 전북 유일 어린이 전용 공연장 '군산 어린이공연장' 개관

아동친화도시 군산시에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한 어린이 공연장인 '군산 어린이공연장'이 문을 연다. 군산시는 11일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 정희상 어린이행복도시추진 공동위원장, 아동, 보육교사, 학부모,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중심의 문화 공연시설인 '군산 어린이전용 공연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어린이공연장은 구 KBS 공개홀에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044㎡면적에 330석 규모로 리모델링한 것으로, 극장용 AV시스템을 도입해 영화 상영은 물론 고품질의 문화예술 공연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즐거유치원 어린이들의 마칭밴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축사, 꿈꾸는어린이집·소룡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참여한 힐링허그 사감(사랑합니다·감사합니다)댄스, 테이프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관 기념공연으로 샌드아트와 퓨전국악공연, 마술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부영이가족·행복인형·희망나무·에어로켓 만들기와 안전교육, 영어동요 부르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했다.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은 “어린이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적 감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정희상 어린이행복도시추진 공동위원장은 “어린이공연장이 앞으로 어린이 문화행복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 여름 소룡동 야외수영장 개관에 이어 오늘 어린이 공연장 개관은 어린이들에게 쉼 권리를 보장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어린이의 현재가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행복한 휴식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는 아동 친화도시 인증과 어린이전용 공연장 개관을 기념하여 11월을 행복주간으로 정하고 공연장 무료대관 및 무료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 시작 전부터 인기 만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교육 프로그램 가득

11월 18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금강철새조망대와 금강습지생태공원 등지에서 열리는 '2016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이 시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이 그 비결! 올해는 단순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최대한 지양하고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재미와 학습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학부모들의 참여 문이기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사전신청 프로그램인 '내 꿈은 사육사', '철새탐험가 되기', '동물교감생태 설명회' 등은 접수 첫날 신청이 모두 마감되는 등 타 축제와 차별화된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사전신청 프로그램 외에도 상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앵무새 먹이주기 ▲병아리 부화체험 ▲파충류 생태체험 ▲아기오리와 찰칵 등과 현장에서 참여 가능한 ▲철새비행기 날리기 ▲철새골든벨 ▲철새친구 흉내내기 콘테스트 ▲철새밀렵꾼 잡기 미니 한궁대회 등 총 47종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도 '군산에 사는 식물 · 곤충 바로알기', '푸름이 아동 환경교실', '전통 영농체험', '철새 먹이주기 행사', '탐조투어' 등 쌀쌀한 날씨를 잊게 할 신나는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해 어린이와 가족단위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6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강철새조망대 홈페이지(<http://gmbo.gun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철새생태관리과(063-454-5684)로 문의하면 된다.



■ 군산-서천, 자전거로 우정 나뉜

'2016 서천 군산 자전거 대행진' 성황리에 마쳐 이웃사촌인 군산시와 서천군이 12일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으로 유명한 금강자전거길에서 '2016 서천 군산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작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교환행사로, 지역주민들과 자전거 동호인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전거로 하나가 되는 화합행사가 되었다. 양 시군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벨리댄스, 자전거 모기공연 등 식전행사로 흥을 돋았다. 기념식에서는 군산시민과 서천군민이 화합의 염원을 담아 기증한 화합자전거 20대를 양 시군이 10대씩 서로 교환했으며, 이 자전거는 화합자전거 스티커를 부착해 공공자전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금강변의 가을정취를 만끽하며 금강하구둑~신성리갈대밭~웅포대교~공주산~금강철새조망대~금강하구둑으로 돌아오는 38km를 라이딩하며 자전거로 우정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전거 트레일리에 아이들을 태우고 참가한 가족단위 참가자들도 신성리갈대밭까지 22km를 왕복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양주생 군산시 건설과장은 “내년에는 군산시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양시군에서 매년 번갈아 가며 자전거대행진 화합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군산과 서천의 화합, 상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시, 양파 생산비 절감기술 기계정식 연시회 개최

양파재배 기계화로 노동력 72%, 생산비 36% 절감 효과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11일 내홍동 안정마을에서 국내 외 2개업체 정식기와 양파 재배농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파 기계정식 연시회를 개최했다. 양파재배는 전 작업의 40%를 인력에 의존해야 하는 등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나,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양파 등 발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는 올해 양파 기계화 시범사업으로 5ha 면적에 양파 기계정식을 추진하게 되었다. 양파 기계정식은 기존 인력정식의 약성노동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정식이 10a(300평)당 50시간 정도 소요되는 반면, 기계정식은 12시간정도면 정식이 가능해 4~5배의 능률이 향상되어, 노동력은 72%, 생산비는 36%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 또한 인력정식에 비해 뿌리가 조기 활착되어 월동률을 높이고 수확량도 25% 정도 증대시켜 농가에 소득향상 효과를 가져다 준다. 군산시의 경우 발면적이 적어 소득작목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앞으로 영농 기계화를 통해 쌀·보리 대체작목으로 논을 활용한 발작물 확대를 추진, 소득작목 재배면적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내년에는 양파재배 기계화 확대를 위해 정식기계를 추가 확보하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발작물의 기계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 과정의 기계화를 통한 군산농업 경쟁력과 기술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시립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성료

강연과 탐방을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총 320명 참여 군산시립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군산과 관련한 문학·예술·영화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군산시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도서관협회가 함께하는 '2016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돼 '문학과 예술, 군산으로의 산책'이라는 주제로 지난 8월부터 강연과 탐방을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차 프로그램은 '군산 격변기 예술활동과 삶 바라보기', 2차 프로그램은 '군산의 문화적 자산과 문학적 상상력', 3차 프로그램은 '영화 속 군산 이야기'라는 주제로 총 320명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문학이 누구에게나 생활 속의 학문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친숙한 내용을 담아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인문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큰 호응을 얻었다. 김홍식 군산시립도서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문학적 소양이 함양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내년에도 더 참신한 주제로 지역내 탐방과 강연을 통해 현장속의 인문학, 생활속의 인문학이 실천되어 도서관에서 지역주민의 새로운 독서문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 제공_군산시청 공보과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
T.063)450-4208 F.063)452-8159

겨울밤 친구는 역시 군고구마 밖에 없구나!

“군고구마~ 사려! 야~ 끼~~모~~~”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itel.net

그 옛날 깊어가는 겨울밤, 거리의 군고구마 장수들이 외치고 다니던 소리다. 저녁을 배부르게 먹고 꺼지기 시작할 즈음이면 어김없이 골목의 고요를 타고 안방까지 들려왔다. 파끈파끈한 군고구마가 눈앞에 그려지면서 침을 꼴깍 넘어가게 했던 그 소리. 신작로가 조용한 날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지기도 했다.

경력이 쌓인 군고구마 장수는 목소리도 유창했다. ‘군고구마~’는 고음으로 느리게 빠다가 ‘사려’는 남음이 머슴에게 명령하듯 외치고는 잠시 숨을 고른다. 그리고 ‘야’는 짧게, ‘끼’는 약간 길게, ‘모’는 고무줄 늘어듯 더욱 길게 뻗는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도 따듯하게 녹여주었던 그 소리는 판소리의 한 대목처럼 흥겹고 정겹게 느껴졌다. 소리가 귀에서 멀어지면 서운할 정도로.

일제강점기 조성된 거리의 상가(商街)도, 이웃사촌 이름도, 생활 용어도, 어린이 교육 방식도 모두가 일본식이었던 50~60년대, 철부지였던 나는 ‘야끼모’를 ‘군고구마’의 멋진 다른 이름으로만 알았다. 군침만 삼키다가 열 살이 넘어서야 겨우 맛보았던 당고(짬짬이)와 모찌(찰쌀떡)도 마찬가지.

고구마는 섬 고구마가 더 맛있어

어렸을 때는 집에 고구마가 떨어지지 않았다. 고구마 캐는 시기가 되면 맛이나 보라며 선물로 들어오기도 했지만, 해마다 외가에서 가마니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외가는 1960년대 초중반 간척공사로 육지가 된 섬(부산군 계화도)이었

다. 고구마는 외삼촌이 부리는 자그만 돛단배에 싣고 왔다. 짬보선창에 배를 댔다고 연락이 오면 달려가 킁킁대며 고구마를 나르던 기억도 새롭다.

외가에서 가져오는 고구마는 모두 물고구마였다. 그 시절에는 전북 익산의 ‘황댕이고구마’(황등 고구마)를 최고로 쳤다. 어머니를 비롯한 동네 어른들은 “육지보다 섬 고구마가 더 달고 맛있어!”며 계화도 고구마를 선호했다. 황댕이고구마(밤고구마)는 퍼석퍼석하고, 계화도 고구마는 수분이 많아서 입이 심심할 때 그냥 깎아 먹어도 ‘배추꼬랑이’처럼 달고 시원하다는 게 이유였다.

긴 겨울밤,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가 하나둘 모이면 어머니는 외갓집에서 가져온 물고구마와 김장김치를 쟁반에 가득 담아 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김치에 싸먹으며 털어놓는 제빙공장 기술자 고씨 아저씨의 익살은 방안

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흠뻑 빠진 사람들은 통행금지 첫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18세기 중반 조엄이 대마도에서 처음 들여왔다는 고구마는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 물고구마 등으로 나뉜다. 그중 맛과 식감이 뛰어난 호박고구마는 품종 교점으로 10~20년 전부터 국내 재배를 시작하였고, 밤고구마와 물고구마는 토종으로 분류된다. 토종도 햇고구마로 불리는 밤고구마는 여름에 나오기 시작하였고, 가을에 수확하는 품종은 물고구마였다.

추억여행 동반자가 돼준 군고구마

즐겁고 푸짐해야 할 2016년 성탄절과 송년은 그야말로 개뿔. 동짓날도 팔죽은커녕 긴긴밤을 혼자 지냈다. 크리스마сы이브도 ‘나 홀로 신세’를 면치 못했다. 아내가 밤(나이트) 근무를 했기 때문이다. 재수가 옴 붙었는지 여제도 그제도 혼자였다. 올해는 조카와 형제들이 모여 소주잔을 부딪치는 송년회 계획도 없다.

밤이 되면서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시골의 야경은 운치가 그만이다. 대문 앞에서 외롭게 줄고 있는 가로등 불빛이 한 몫 더한다. 금방이라도 야경꾼들의 딱딱이 소리가 들려올 것 같은 분위기. 문득 이야기꽃만 발한 고향 집 안방 풍경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가 생각났다. 해서 호박고구마 몇 개를 씻어 직화구이 오븐에 올려놓았다.

가스불을 약하게 한다. 은근히 익혀야지 급하게 익히면 아까운 속살이 새카맣게 타버린 겉질에 달라붙고, 맛도 떨어지기 때문. 10분쯤 지나자 ‘끼야~썩 따닥’ 소리를 내며 익는 냄새가 코를 즐겁게 한다. 고구마가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뚜껑을 열고 하나씩 뒤집어 준다. 20분쯤 지나면 완전히 익는데, 젓가락으로 찌러보면서 자잘한 눈부터 차례로 꺼내놓는다.

군고구마는 동치미와 궁합이 맞는다고 하는데 없으니 어찌

랴. ‘썩 대신 닭’이라고 김장김치를 곁들이니 그 또한 환상적이다. 맛도 맛있지만, 토속적인 정취에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던 기분이 전환된다. 김치와 고구마는 서로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억제해주는 상부상조하는 사이여서 먹는 사람도 좋게 느껴진다고 한다.



찌먹기도 하고, 구워먹기도 하고, 깎아 먹기도 하는 겨울철 으뜸 간식 군고구마가 오늘은 추억여행의 동반자 역할까지 해줘 고맙기 그지없다. 저녁 지어먹은 아궁이 잿더미에 묻어 놓고 깜빡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속상해했던 추억들이 시나브로 떠오르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순간 ‘겨울밤 친구는 역시 군고구마밖에 없구나!’ 소리가 절로 나왔다.



종아니의 발길 닿는 대로

치아도 유전인가요?

진료실에서 오가는 대화중에는 유전적 원인 또는 가족력에 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치주질환이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매우 심한 분은 본인의 부모님도 그러하셨다고 하면서 “내 잇몸 상태가 나쁜 것은 유전적 영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출입이 아닌데 큰 딸은 돌출입이어서 걱정이 많은 상황의 경우에 “가족 중에 입 튀어나온 사람 없는데 애만 이러한 걸 보면 이러한 현상은 유전이 아닌가 봐요?”

치과적인 문제 즉, 유달리 치주질환이 심하거나, 턱이 돌출되거나, 충치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것들은 과연 유전적인 요소의 작용 결과일까요, 아닐까요? 결론은 ‘유전적 영향이 매우 크다.’입니다. 그럼 “가족 중에 돌출입이 한 명도 없는데 큰딸만 턱이 튀어나왔다면 어떻게 된거죠?”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빠의 유전정보 50%와 엄마의 유전정보 50%가 합해져서 아기의 피부색부터 손가락의 길이, 머릿결의 특성, 소화기관의 효율 등등 인체의 형성 설계도가 완성이 됩니다. 바로 이 DNA 설계도를 바탕으로 태아 때부터 성장이 끝날 때까지 인체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성장이 끝난 후에도 노안이 언제부터 시작될지, 흰머리는 어떻게 날지 등등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는 돌아가신 외할머니께 감사드리는데 점이 있습니다. 외할머니는 70이 넘는

나이에든 검은 머리를 자랑하셨고, 저도 나이에 비해 흰머리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DNA 설계도대로 인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데 2가지의 변수가 우리를 헛갈리게 합니다. 첫 번째 변수, 설계도대로 집을 짓고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지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설계도와 약간(아주 아주 약간) 다른 집이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유전정보가 50%씩 더해져서 DNA 설계도가 완성이 되는 건 확실하지요. 그런데 설계도에는 걸로 드러나는 요소도 있지만 걸로 드러나지 않는(발현되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입 튀어나온 분이 없지만 큰딸이 돌출입인 것은 손가락을 빠는 습관 때문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 DNA 설계도에 돌출입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지만 실제로 돌출되지는 않게 되어있다가 그 정보가 큰딸에게서는 걸로 드러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달에는 유전에 대한 얘기가 복잡하게 길어졌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전의 힘은 강력하다.’입니다. 유전공학에서는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미리 파악해서 그 정보를 지워서 암을 예방하는 실험을 계속하



고 있기도 합니다. 본인 나름대로는 칫솔질도 열심히 하고 설탕을 멀리하고 있지만 치주질환이 심하게 진행되거나, 충치가 1년 만에 열 개 넘게 생기고 충치도 깊게 진행되었다면 유전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적으로 이러한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라는 질문에 적절한 답은 없습니다. 치아 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 치과 정기검진을 6개월에 1 번씩 꼭 받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다음 달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사람 좋은치과 이형재 원장
군산시 수송동 852-2 청담빌딩 3F
(063)466-2875
bolteck2@hanmail.net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해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의 미소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겟 어 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진료시간
● 평일: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오전 9:20 - 오후 2:30
● 화요일 야간진료:
오후 8:00까지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 063_466_2875 fax. 063_465_2922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관련 세제



현행	변경안
증여·상속세	신고기한 내 세금 신고 시 10% 세액공제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 감액)의 토지보유 기산일이 '2016년 1월 1일' 부터여서 당분간은 공제 적용 불가능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초과 시 세율 38% 적용

1.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 7%로 축소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고 신고기한내 자진신고하는 경우 2016년 까지는 자진신고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하였는데 올 1월부터는 그 공제금액이 7%로 축소됩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내, 증여세는 증여받은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자진신고납부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5억원 아파트 증여 시 증여세 부담 변화

	올해	내년
증여재산가액(A)	5억원	5억원
자녀 증여시 기본공제(정액·B)	5,000만원	5,000만원
과세표준(C=A-B)	4억5,000만원	4억5,000만원
산출세액(C x 증여세율*) (D)	8,000만원	8,000만원
신고세액공제(E)	800만원(D x 공제율 10%)	560만원(D x 공제율 7%)
최종 세액(D-E)	7,200만원	7,440만원

*증여·상속세율=과세표준 1억원 미만 10%, 1억원 초과~5억원 미만 20%, 5억원 초과~10억원 미만 30%, 10억원 초과~30억원 미만 40%, 30억원 초과 50%

2.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올해부터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나대지(빈 땅) 등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보유 기간(최소 3년 이상)에 따라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의 10~3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되 모든 토지보유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라고 정하였기 때문에 공제 조건(최소 3년 이상)을 충족하는 게 불가능했으나, 올해

부터 기산일이 '토지 취득일'로 바뀌면서 실제 토지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2억원에 구입한 자경하지않는 농지를 작년에 7억원에 처분하였다면 양도차익 5억원 전액에 세금이 부과돼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2억 4,000만원에 달하였지만, 올해 매각하면 10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1억 6,000만원으로 약 8,000만원 가량의 세금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10%추가과세는 계속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신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초과 시 모두 동일하게 최고세율 38%가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5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40%로 높아지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44%에 달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10%추가과세되기 때문에 5억이상의 차익이 발생하는 비사업용토지는 세금이 차익의 55%에 달하게 됩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월명동 19-12
(063)466-5566, 1766

세무상담 및 고문 | 가장 및 신고대리 | 법인 및 개인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업무 | 조세 불복 청구대리 | 벤처기업 확인 업무

돈이란 버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사사무소**와 함께 하셔야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무문제는
나일환세무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는 양질의 **세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조세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일환세무사 **약력**
국세청 79급 공채(15년 근무) /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익산세무서 소득세과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양도상속증여) / 공인중개사(14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 자문세무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세무분야 전문가
군산세무서 공평과세 위원회 위원

나일환세무사사무소

군산시 동국사길 5 (월명동 19-12)
tel. (063)466-5566, 1766 fax. (063)466-5605

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 동향



금변호에서는 2017년에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부동산 관련 제도를 미리 알아봅니다.

1.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년 유예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년 더 연장돼 2019년부터 적용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의 경우 필요경비(임대소득의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입니다. 또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소형 주택 기준은 전용 85㎡에서 60㎡로 축소됐고 2017년부터 적용됩니다.

2.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현행 2016년 1월 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됐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로 과세하되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최소 10%에서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3.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 신설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이 38%에서 40%로 신설되고 2016년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초과 시 38%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2017년부터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에는 40% 세율로 과세됩니다.

4. 집단대출 시 잔금 대출에도 규제 도입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 대출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소득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또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가는 비거치,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5. 청약가점제 자율화 조치 시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따라 점수(84점 만점)를 매겨, 높은 점수 순서로 청약자를 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9월 도입됐으나 주택 경기 침체로 2013년에 전용 85㎡ 초과 주택에 대해 가점제가 폐지됐고, 전용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의무 적용비율이 75%에서 40%로 낮춰진 바 있습니다.

6.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80%→75%로 완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단지가 아닌 일부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집주인의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7. 2층 이상 건축물 내진설계의 의무화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이 해당되며 관련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9월 입법 예고된 가운데 2017년 1월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8.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것으로, 인증대상은 주택·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대다수 건축물입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최대 15% 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완화(주택사업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30~50% 지원(예산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9.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전국 확대

10. LTV·DTI 규제 완화 종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7월 종료됩니다.

1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연말에는 재건축 시장의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5년 5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행됐고 이어 2006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고 이어 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016년 부동산 경기가 널뛰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군산지역은 굴뚝 산업의 불경기 영향으로 더욱 얼어붙은 부동산 침체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디 2017년은 더욱 더 활기찬 부동산 시장이 되길 기대하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필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석사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
자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
최인성 대표
군산시 조촌동896 (시청로10)
(063)452-0025 / 010-7758-4989

품어보자! 희망의 알들을...



정유년(丁酉年)이 밝았다.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한다. 닭은 십이지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날짐승이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 재능이 줄어들면서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땅에서 주로 살고 있고, 땅에서 살지만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새벽을 알리는 외침을 외친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상상의 동물인 용과 가장 친한 동물도 바로 닭이고 상상력을 펼치는 일을 용이 벌인다면,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은 닭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닭의 해에는 더 많은 희망을 품을지도 모른다.

그 첫 희망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희망, 이 말은 전 김영삼 대통령의 어록 중 유명한 말인데 닭이 울면 새벽이 오니, 닭을 죽이면 새벽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닭을 죽인다 해도 결국 밝아 오는 새벽은 막지 못한다는 뜻으로 민주화를 막기 위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밝아 오는 민주화는 막을 수 없다는 말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일그러진 나라를 바

로 세우는 희망, 그 희망의 첫 희망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희망은 어둡고 힘들었던 터널 같은 경제의 위기를 벗어나는 희망이 아닐까?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국내 경기도 어려워지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주력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수출부진과 내수부진 등으로 그야말로 어려움의 쳇바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제가 살아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 특히 우리지역의 조선산업 위기가 초래할 고용시장의 불안과 소득저하 그리고 소비침체로 이어지는 불경기를 극복하는 희망이 다음 순이라 여겨진다.

세 번째 희망은 소외된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 희망, 우리 주변에 나도 모르게 소외되어 쓸쓸히 지내고 있는 어려운 환경의 노인들과 장애우 그리고 소외된 어린이, 소년소녀가장,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늘 소외되었던 이들이 다시 우리와 함께 밝은 웃

음을 가질 수 있는 관심과 사랑이 돌아오는 희망 함께 사는 세상이 되는 희망이고 끝으로 가족 모두의 건강과 평안의 바람, 젊은이는 사랑을, 학생은 희망하는 대로 진학하고 취업하는 희망, 직장인은 진급의 희망, 아픈 사람은 건강의 희망... 누구든지 갖고 있을 저마다의 작은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작은 희망들이 하나 둘 이루어지는 한 해이기를 바란다.

정유년 붉은 닭의 기운으로 맑고 밝은 해안으로 하는 일마다 순리에 따라 잘 풀리는 한 해, 바라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 더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희망이 살아있는 한 해, 그런 새해가 밝았다고 목 놓아 울어대는 새 아침의 외침이 더 힘차게 울려야 한다.

그 닭의 목이 비틀어져도 오는 새벽을 막을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글 | 이영진
younggeen2@naver.com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한해 관람객 100만명 돌파 시민이 함께 만든 박물관의 성과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2016년 한해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0일 박물관 1층 로비에서는 2016년 한해 관람객 100만명 돌파를 축하하는 특별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문동신 군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 100만 번째 방문한 행운의 주인공은 휴일을 맞아 서울특별시에서 박물관을 방문한 정지혜 씨(24). 이 날 주인공인 정지혜 씨에게는 2인 가족 호텔 숙박권을 비롯해 전자제품과 지역특산품을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아깝게 100만 번째를 놓친 999,999번째 관람객과 1,000,001번째 분에게도 선물을 증정했으며, 100만번째 이후 입장하는 관람객 100명에게는 전자제품과 군산시 대표쌀과 흰찰쌀보리를 나눠주며 박물관의 경사를 함께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지난 2011년 9월 30일 근대문화 중심도시 군산의 특화된 박물관으로 개관하여 작년에는 한해 81만 명이 방문하였고, 올해 관람객도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금년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여행주간 주요 관광지 방문객 현황조사에 따르면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전주 한옥마을과 함께 전라북도의 대표 관광지로 보고되어 향후 성장가능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



다. 이처럼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전국에서 찾는 명소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근대문화 특화 박물관 그리고 알찬 볼거리
군산시에서는 2014년부터 박물관과 인근 근대시설물인 조선은행, 18은행 등을 전시장으로 활용하여 통합된 근대문화 테마단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개별 건물들의 연계성을 위하여 '스텝 투어'를 운영, 벨트화지역의 8개 건축물을 방문하여 스텝프를 찍어가면서 근대 건축물을 학습하고 여행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근대문화 특화 박물관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공간은 '1930년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운영되고 있는 '근대생활관'이다. 이곳

에서는 일제강점기 실존했던 건물들을 재현하고 그 안에 전시와 체험 그리고 교육을 담아냄으로써 찾는 이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박물관체험학습지를 제작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박물관학교 및 전래민속놀이, 공예체험교실 등 다양한 역사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박물관의 사회교육기능을 활발히 한 점도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기획전시

기획전 및 특별전은 박물관 벨트화지역에서 연 20여회 개최되는데 박물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박물관 기획전시는 매년

기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에는 『역전의 명수, 군산야구展』을 시작으로 지역인물 조명 시리즈인 『포도의 명인 낭곡 최석환展』 그리고 지역 근대사를 조명한 『1950 군산 6월의 꽃 기획전』을 전시했고 올해에는 군산의 독립유공자 특별전 『자랑스러운 군산의 독립영웅들』, 안중근의사의 생애, 하얼빈의거와 더불어 안중근의사와 뜻을 같이한 독립 운동가를 조명한 『대한인 안중근과 대한의 자손들』, 세계적 문호이자 국제인이었던 최치원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인 최치원』, 독도박물관과 공동 기획한 소중한 우리영토 독도에 관한 『근대도시 군산, 독도와 함께하다』, 100만 관람객 돌파를 기념하여 현재 진행 중인 전시인 『아름다운 공유, 군산이야기』까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지역박물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박물관 시간여행 근대문화공연

박물관의 다양한 근대문화공연은 군산의 근대역사문화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특화된 박물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박물관은 마당놀이와 인형극, 거리문화공연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특화된 문화공간으로 꾸며나가고 있다.

근대 마당놀이 수탈전은 시민참여 문화공연이자 박물관 대표 문화상품으로 2012년에 창단된 박물관 연극 자원봉사

단체인 군박패(군산근대역사박물관놀이패)가 참여해 일제강점기 수탈과 저항의 도시였던 군산항을 배경으로 우리 조상들의 고통과 한(恨)을 노래와 춤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수탈전은 매주 토요일 오후 박물관 광장 차 없는 거리(무궁화 거리)에서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군산관광에서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 공연

2013년 처음으로 시도되어 아이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전국 최초의 박물관 인형극은 근대기 군산출신 위인들을 주제로 진행한다. 공연내용으로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쌍천 이영춘 박사의 삶을 인형극화한 공연과 일제강점기 실존했던 애국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대한아 놀~자!'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극화하여 공연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군산출신 일제강점기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채금석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축구의 거인, 오토바이 채금석'공연이 이루어졌다.

박물관 근대문화장터와 거리문화공연 운영

매주 토요일 근대문화 공연 및 체험활동을 결합한 '박물관 개항장터'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보장에도 앞장서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BUY 가맹점 제도 체결

박물관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지 방문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박물관을 다녀간 방문객이 관람권을 제출할 시 가맹점 등록업체에서 판매금액(현금10%, 카드7%)을 할인 받을 수 있는 BUY 가맹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BUY 가맹점 운영을 통하여 군산의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가속화시키고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는 별도의 할인 혜택을 부여해 박물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차별화된 사업들은 개관 4년만인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전국 5대 공립박물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룸과 함께 올해에는 한해 관람객 100만 명이라는 쉽지 않은 성과를 개관 후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루게 되었다.

근대문화도시 군산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근대역사박물관은 매주 주말에는 관람객들이 줄 서서 입장권을 예매하는 진풍경을 연출하며 우리 역사와 근대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 배어있는 원도심 근대문화유산을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재조명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박물관으로써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전하였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응원하는 꿈청지기의 일일차집

“우리 애들은 다 컸지만
이제 내가 지역에서 해야
할 일 같아요.”

- 꿈청지기 최정민 회장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러한 공간에 왔으면 좋
겠어요.”

- 꿈청지기 채연재 서기,
신은미 총무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돕고 싶어요”

- 꿈청지기 조수정



청소년 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서 지난 11월18일 일일차집을 열었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내 ‘꿈청지기’라는 자원활동가 그룹이 군산의 청소년들에게 진로활동, 사회참여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 및 진행하였다. 꿈청지기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자치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고자 모인 지역의 시민들이다.



꿈청지기는 청소년을 불쌍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려하지도 않는다.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해 ‘굳이 필요한가’라는 회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청소년들의

어떠한 활동은 단순한 체험활동을 넘어선 삶의 움직임으로 인식된다. 즉, 나를 포함하여 지역에 필요한 무언가를 고민하고 진행하면서 사회변화와 함께 자기 진로를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 꿈청지기는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5월 제1회 꿈청지기 번개차집에 이어 11월엔 좀 더 다양한 음식들로 지역사람들을 찾아보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안살림살이를 챙겨와 달그락에서

대추생강청, 유자청, 자몽청, 오미자 등을 만들고 포장하였다.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좋은 공연기부자들을 찾았다. 일일차집 당일, 꿈청지기는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한 공간으로 초대하였다. 지역의 비청소년과 청소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1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고, 이 금액은 제1회 꿈청지기 번개차집과 같이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의 계획서를 작성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된다. 정기적으로 지역 성인과 청소년이 만나 좋은 관계들을 만들고, 지역에 기여하는 달링(달그락에서 이루어지는 멘토링)을 운영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계기들로 만나게 된 꿈청지기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차집을 열고자 하는 이유는 한가지다. 함께 살아가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이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후원문의 : (063-465-8871, 후원직통전화(070-7726-9377))
(담당: 최미나 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youthautonomy/>

다이어트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수학정석처럼 하는 다이어트는 금물

안녕하세요! 21일의 기적을 만드는 레오 코치입니다. 요즘 맛집과 먹방tv가 유행인데요! 퇴근 후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tv를 보다 보면 오늘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기분으로 치킨이나 닭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좋은 안주도 있고 기분도 좋으니 술도 한 잔 합니다.

긴장이 풀린 상태라 다이어트 의지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하루 먹어야 할 칼로리를 저녁 후식으로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한 번 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과식을 하다보면 슬프게도 다이어트는 언제나 도돌이표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 했잖아요! 제일 많이 공부한 책이 수학의 정석이죠? 처음에는 수학천재라도 될 것 같은 기분으로 열심히 밑줄 칩니다. 이대로만 가면 수학 만점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개월만 있다가 한 번 보실게요! 이건 수학 천재가 아니라 집합천재예요!! 집합은 누구보다 자신있게 됩니다.

집합 부분만 시켜명습니다. 그런데 뭘 줄을 그렇게 많이 치는지 집합 부분만 책이 완전 찢어져 있어요! 집합 뒤에서부터는 어떻게? 완전 새책입니다. 중교로 팔아도 새책 값 받을만큼 깨끗합니다. 먼지 한 톨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1개월 뒤 수학은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며 또 집합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1개월 뒤 1개월 뒤 1개월 뒤 그렇게 고등학교 3년 36개월 동안 시험 보면 집합 3문제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학생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집합 천재가 되어갑니다.

다이어트도 이렇게 수학정석처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목표 체중이 있으면 끝까지 가보기도 전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한 달 동안 열심히 빼고 한 달 동안 뺀 거 다시 돌아옵니다. 수학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다이어트 잘 하면 예쁜 몸매와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가슴 아프게 시작은 창대하고 그 끝이 미약할까요? 크게 요약하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사람의 의지력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계획의 실패에는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수학공부도 다 이어트도 예외가 아니죠)
2. 항상 하던데로 한다. (인체에는 항상성이 적용됩니다. 인체의 조직과 구성성분이 한결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자가 조절 장치입니다. 사람의 습관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하던데로가 편하고 항상 가던 길이 편합니다. 수학에서도 집합만 공부하는 게 편하고 다이어트도 한 달만 하고 포기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쉽습니다.)

3. 처음부터 잘못된 로드맵을 가지고 간다. (부산에서 서울을 가야하는데 대전으로 가는 기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로드맵으로 가게 되면 언제나 도돌이표 공부 도돌이표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원하는 만큼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의지력에 한계가 있고 항상 하던데로 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 시도들이 의지력을 가지고 하는 어려운 일이 아닌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개월 뒤 결과는 어떻게요? 아마도 한 사람은 실망감을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다른 한사람은 만족할 만 한 결과를 얻고 목표를 향해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1개월이 모여서 10개월이 지나면 한 사람은 원하던 건강을 얻고 한 사람은 깊은 좌절감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더라도 도착지가 다릅니다.

이제 도돌이표가 되는 다이어트는 끝내고 도착지가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 성공하는 다이어트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레오코치였습니다.

“내가 사랑한 모던보이”

한국복식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라면 참조문헌 1호로 보는 저서
가 바로 <조선복식고> (1947,백
양당)이다. 지금까지 나온 한국
복식사 연구 저서 중에서 상고
시대복식에 대한 첫 번째 단일한
연구서 이면서 이 논문을 능가할
저서는 아직까지 없다고 할 정도
로 최고의 자료로 꼽힌다.

조선복식고를 쓴 저자 이여성(본
명 이명건)은 1901년 경북 칠곡
에서 금부도사 이선훈의 손자이
며 만석꾼 팔부자집 장남으로 태어났다.
18세 보성고보를 졸업하기 까지 학생시
절에 체조, 마라톤, 테니스, 역도, 스케이
트, 등산 등 만능 스포츠맨 이며 달변가
였고 그림도 잘 그렸다고 한다.

이여성은 한국 복식사에서 개척자인 복
식학자였으며 진보적 민족주의 정치가,
사회주의 운동가, 독립운동가 였고 <수
자조선연구>를 통해 일제의 침탈을 고
발한 언론인이었고 상고시대부터 조선
말까지 역사를 그림으로 표현한 역사
화가이며 남화(南畵)의 거두였다.

최근에 방영된 영화 ‘밀정’에 등장하는
약산(若山) 김원봉과 초대 국회의장
을 지낸 약수(若水) 김두전과 여성(如
星) 이명건은 우국지사 홍성규에 의해
의형제로 맺어진 사이였는데 약산(산과
같이) 약수(물 과같이) 여성(별과같이)
이라는 호를 붙여 주었다.



독립운동을 하다 투옥되어 옥살이를 하
고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귀국 후 언론
인과 연구자로서 민족의 전통을 재확인
하고 연구 소개하는 일을 하였다. 해방
후 여운형과 함께 건국준비위원회에 참
여하여 활동하다가 1948년 월북하였고
김일성대학에서 역사학 강좌 장으로 활
동 했다고 한다. 분단은 그의 저서를 금
서로 만들었고 <조선복식고>는 1990년
대가 되어서야 남한에서 거론할 수 있
게 되었다.

<조선복식고>를 저술할 당시는 1930년
대 였는데 친일이나 자본주의 경제활동
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 부자들이 생겨
났고 식민지 조선의 인구학적 변화 및
생산성의 증대로 대중문화와 소비문화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경성이라는
특정 장소를 매개로 소비문화가 확산되
고 서구스타일이 유행했다. 1930년대를
다른 영화, 암살, 아가씨 등에서 보여 지

는 모던걸·모던보이들은 부유한
조선인이 누릴 수 있는 사치스런
것들로 가득 찬 경성에서 카페에
서 커피를 마시고 호텔 팜코트에
서 에프터눈티를 즐기고 댄스장
에서 춤을 추고 백화점에서 쇼
핑을 즐기며 새로운 사상을 논
하고 패션을 입었고 자유연애
를 즐겼다.

일본 동경에서 경제학을 공부하
며 엘리트 교육을 받고 신문물을
접한 조선 최고의 모던보이 이여
성은 메조소프라노 박인애와 결혼하고
조선에 돌아와 식민지 조선의 자주적인
독립을 꿈꾸며 문화조선의 역사를 알리
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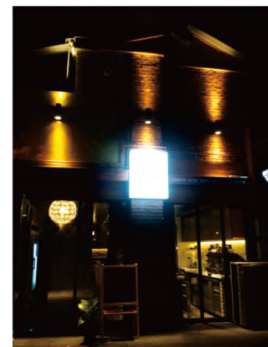
포마드를 발라 가지런히 빗은 머리와
둥근데 안경, 잘 다려진셔츠에 핏이 살
아있는 슈트를 입고 클래식 하면서 중
후한 댄디룩의 그가 약산 김원봉, 약수
김두전과 함께 경성을 거니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영화의 한 장면이다.

1930년대 군산역시 광복 전까지 무자비
한 수탈에 시달렸다. 수탈과 항쟁의 흔
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군산에서 나는
지금 모던걸 웨딩스토리에 그의 이야기
를 담아내고 모던살롱에서 조선복식고
를 읽으며 그를 그리워한다.

이미숙
차림문화원 대표 복식 수석큐레이터
010-5284-7503



COFFEE WINE BEER PASTA SANDWICH



군산시 둔율1길 2 (안동집 옆) T. 070-4152-0466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_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입니다. jay0810@hanmail.net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군산시립합창단 제89회 정기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김민재 귀국 피아노 독주회-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6-17 버즈 전국투 어 콘서트-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01	02	03	04	05	06	07
2016-17 버즈 전국투 어 콘서트-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프란츠 리스트에 의한 그림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클래식에서 힐링을 찾다 군산예술의전당	뮤지컬 - 캐리와 장난 감 친구들 전북대 합창단 제44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08	09	10	11	12	13	14
뮤지컬 - 캐리와 장난 감 친구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오유진 바이올린 독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군산시립교향악단 제51회 기획연주회 군산예술의전당			가족뮤지컬 겨울왕국 군산예술의전당 2017 희망나눔 신년 콘서트 블라인드 패키지 - 아트스테이지 소리 아트스테이지 소리 : ep55 바버렛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5	16	17	18	19	20	21
새라새 윈드 오케스트 라 제3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7 전주시립교향 악단 신년음악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전시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12.20(화)~02.26(일) 이영란의 밀가루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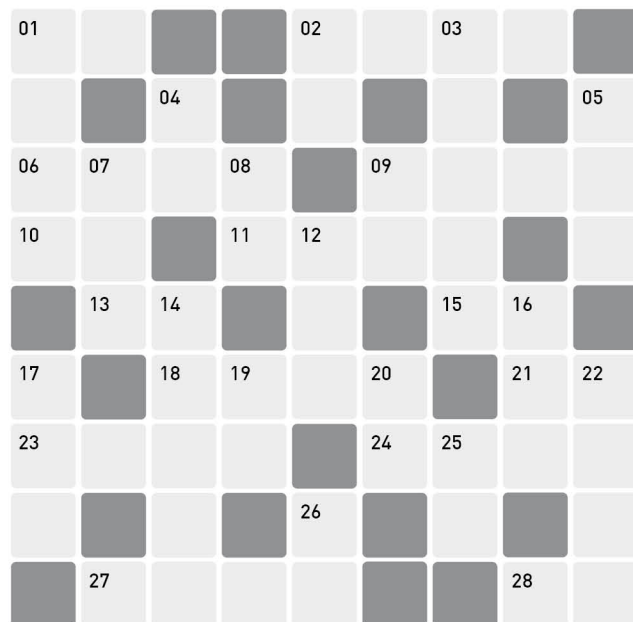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스영아원 군산시 개정동 413 (063) 452-4075	구세군군산후생관 군산시 신흥동 58-10 (063) 445-9331	삼성애육원 군산시 신창동 7 (063) 445-5947
일맥원 군산시 문화동 824-7 (063) 462-2385	신광모자원 군산시 나운동 1242-9 (063) 462-7749	신광모자자립원 군산시 나운동 845-9 (063) 461-8572
구세군군산목양원 군산시 회원면 증석리 58-8 (063) 466-6088	나눔의집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88-1 (063) 464-9944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 3길 37번지 (063) 466-7981

낱말 실력도 높고, 상품도 받고

즐거워 크로스워드 퍼즐 66



<제65호 퍼즐 정답>

허	수	아	비		삼	식	이	
	험		인	기	척		주	술
민	생	고			동	지		고
낮			지	화	자		타	래
	모	세		류		유	성	
최	면		사	계	절			땅
순		시	주			사	기	꾼
실	기		팔	등	신		관	
	피	마	자		참	모	총	장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911-1856 **E-mail.** jay0810@hanmail.net

정답이었으나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열쇠

- 01 KBS전국노래자랑 최 장수 명사회자.
- 02 평평하고 넓은 큰길. 어려움 없는 순탄한 장래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 06 어린 닭을 털과 내장을 없애고 통째로 삶은 음식.
- 09 주체성 없이 세력이 강한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태도.
- 10 흥겨운 신이나 밭.
- 11 한 시대의 주류나 특색을 이루는 사상 경향.
- 13 같은 종(種) 안에서 암컷과 수컷의 개체수의 비율.
- 15 무엇을 하는 데에 목표로 삼는 등불. 무엇을 표시하는 등불.
- 18 머리와 꼬리를 잘라버림. 요점만 간단히 말함.
- 21 원유를 생산함.
- 23 좋은 원두의 선별과 커피머신 활용 방법, 각각의 커피 추출 방법까지 전문적 지식과 자격을 갖춘 사람.
- 24 '아무아무'의 뜻을 나타내는 말.
- 27 쇠귀에 경 읽기라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 듣지 못함을 이르는 말.
- 28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평민으로 돌아감.

세로 열쇠

- 01 목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
- 02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 대통령의 위법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에 의거,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파면하는 제도.
- 03 기업의 자산을 부채와 자본으로 나누어 비교할 수 있도록 도식화한 표.
- 04 백제 말기의 명장. 신라 장수 김유신과의 황산벌 전투에서 전사했다.
- 05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의 섬.
- 07 셋별. 금성.
- 08 나무에 달린 채 무르녹게 잘 익은 감.
- 09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음.
- 12 일의 중요한 마디. '요점만 말하건대'의 뜻으로, 의문을 나타낼 때 쓰는 말. ○○○무슨 일이나?
- 14 비가 갠 뒤에 바람이 불고 시원해지는 현상.
- 16 산행할 때 쓰는 모자.
- 17 성미가 강박하고 고집이 세며 모진 사람. ○○리.
- 19 번뇌의 티끌을 떨어 없애 청정하게 불도를 닦는 일. 또는 그런 사람.
- 20 아름다운 얼굴 모습.
- 23 있는 듯 없는 듯 흐지부지함.
- 25 산이나 들에서 절로 자라 사람에게 길들지 아니한 짐승. 몹시 거칠고 사나운 사람의 비유.
- 26 마침내. 결국에는.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1945

Thanks Rice & Nature / Health Bakery 1945

Thanks to rice and nature. Since 1945 bakery that considers your health.
The beginning of a healthy day is baked here!
The place where it gives a stir in one's heart By Lee Sung Dang Bakery.

LEE SUNG DANG

Thanks Rice & Nature / Health Bakery 1945

해방과 함께 시작된 '이성당'의 내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쌀로만든 건강한 빵

이성당은 자연과 쌀에 감사하며, 손님을 대접하는 정성스런 마음으로 항상 노력합니다.

이성당의 대표적인 빵은 앙금빵과 아채빵이 있으며,

2006년 부터는 쌀과 빵을 연결하는 일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블루빵'으로서 일본의 니가타현에 있는

'켄리치' 제과점에서 전수 받았습니다.

현재에는 효모종을 이용한 다양한 쌀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LEE SUNG DANG

●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주문및 상담 . 전화 063-445-2772, 080-445-2772(무료)

전북 군산시 중앙로 1가 12-2



“꿈이란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예요. 언제 하느냐의 문제예요.”

카카오 브런치북 2회 대상 수상

인생을 스스로 걸어가는 소도시 청년들의 리얼 다큐멘터리!

무대가 없으면 어때? 목적 없는 공부를 왜 해? 대학을 안 나오면 어때?
농사가 어때서? 한 번쯤 망하면 어때? 서울에 살아야 할 이유는 뭔데?



우리, 독립청춘

우리는 소도시에서 일한다

배지영 지음

인생을 스스로 만들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소도시 청년들의
따라하고 싶은 43가지 이야기!

북노마드